경기도의회

vol. 296

가족의 하루

손끝에서 시작된 봄



경기도의회

Contents

의정홍보위원회
유영두 위원장(국민의힘, 광주1)
김옥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선희 위원(국민의힘, 용인7)
김태희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2)
임광현 위원(더불어민주당, 가평)
장윤정 위원(더불어민주당, 안산3)
이재교 위원(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장)
황광원 위원(케이미디어 대표이사)
김부용 위원(경기도의회 언론홍보과)
도연수 위원(경기도의회 디지털의사과)

발행처
경기도의회

발행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편집인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

발간일
2026년 5월 18일

경기도의회 사무처 언론홍보과(홍보팀)
(1650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2
문의 전화 031-8008-7123

제작
경성문화사


12


13


44



시각장애인을 위해 성우가 읽어주는 e-book 서비스로 연결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경기도의회>를 만나보세요. www.ggc.go.kr

※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www.ggc.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본지에 게재된 내용 중 일부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경기도의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정의 길

06 **의장 개회사**

08 **본회의 일지**

12 **의정 브리핑**

14 **상임위원회 현장**

40 **5분 인사이트**





삶의 길

44 **경기 지하철 나들이**
모란민속5일장부터 탄천 나들이까지

48 **휠체어로 떠나는 여행**
빛을 만나는 길, 그림을 만나는 하루

52 **하루를 바꾼 조례**
고산자, 길을 그리다

56 **교실에 닿은 조례**
의료 지원과 통합교육으로 배움을 완성하는 경기도의회

58 **의정 웹소설**
아저씨가 뒤에 서 있었다

62 **당신을 기억합니다**
손수 심은 나눔의 집 꽃처럼 매해 피어날 우리의 기억

64 **건강 100년 노트**
흐려진 글씨가 보내는 신호

66 **천천히, 디지털 I**
내 곁에 생긴 말벗, 챗GPT

68 **천천히, 디지털 II**
자녀에게 사진 보내기

70 **선조의 하루, 나의 하루**
장터에서 마트까지, 장을 본다는 것

74 **응답하라 경기**
변해 온 집, 변하지 않은 우리

76 **[웹툰] 의회툰**
누가 정하는 거지?

78 **경기 문화 한마당**

82 **독자 솜씨 마당**

Chapter 1



의정의



여주 신륵사

의회는 결과로 말하는 자리입니다.
논의는 기록으로 남고
결정은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과정까지 쌓아
하나의 방향에 닿는 일.
그 축적을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



"도민의 삶이 경기도의회의 기준입니다.
취약한 곳부터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닿도록 하겠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민생**, 응답하는 **의회**

존경하는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어느덧 4월의 끝자락입니다.
봄은 우리 곁에 와 있지만 민생경제의 체감은 다릅니다.
여전히 차갑고 무겁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3고(高) 위기 속에서 도민의
삶은 아직 진정한 봄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 휴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쟁의 충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복합 위기의 여파는 이미 민생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높은 금리와 물가는 서민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기준과 실천입니다.
민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보강이 아니라 민생을 지키는
방어선입니다.
취약계층 보호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버팀목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의 힘을 모을 때 가능합니다.

지금 의회는 변화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의석 지형이 일부 재편되었지만 도민에 대한 책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경쟁보다 협력이 앞서야 할 때입니다.
초당적 협력은 선택이 아닌 의회의 책무입니다.

집행부에도 당부드립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정책은 더욱 정교해야 합니다.
추경의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따로 갈 수 없습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생활의 무게가 버겁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도민의 삶이 경기도의회의 기준입니다.
취약한 곳부터 살피고, 필요한 지원이 제때 닿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위기에 대응하는 의회,
위기 앞에 책임을 다하는 의회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르포

“봄바람 스미던 본회의장, 도민의 과제를 꺼내다”



봄바람이 머물던 4월,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교육과 교통, 지역개발과 생활 현안까지 도민의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 현장을 따라가며 의원들의 발언과 표결, 그리고 회의장 안팎의 분위기를 르포 형식으로 담았다.



4월의 끝자락으로 향하던 어느 봄날 오전, 경기도의회 광교 신청사 밖에는 옅은 봄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본회의장 안 공기는 사뭇 달랐다. 삼삼오오 자리에 모여 앉은 의원들은 자료를 살폈고, 방청석에서는 조용한 발걸음과 나지막한 대화가 이어졌다. 잠시 뒤 개회를 알리는 김진경 의장의 의사봉 두드리는 소리가 본회의장 안에 울려 퍼졌다. 2026년 4월 21일, 제38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는 그렇게 시작됐다.

회기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과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등 기본 안건 처리가 이어졌다. 본회의장 안에서는 도정과 교육 현안, 지역의 숙원사업과 생활 인프라까지 도민 삶과 맞닿은 다양한 이야기가 오갔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의원들의 발언에는 지난 정책을 돌아보는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를 향한 주문이 담겼다.
본격적인 안건 처리에 앞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진행됐다. 김동연 도지사는 새로 임용된 간부들을 차례로 소개했고, 임태희 교육감도 임용된 간부들을 소개하며 인사말에 나섰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4년 동안 학생의 미래에 집중하며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또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어야 하며, 정책 역시 미래세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당 의원들이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해 준 데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협치의 정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교육과 교통, 지역개발과 생활 인프라 등 도민 삶과 밀접한 현안이 차례로 논의됐다. 일부 발언에서는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도 했지만, 본회의장은 각 지역의 현실과 요구가 모이는 공간이 됐다.

발언대에 오른 의원들은 군 협력체계 구축과 학교 신설 문제, 평생교육시설 건립, 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 문제 등을 언급하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또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 광역교통망 구축, 경제자유구역과 문화사업 추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행정과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회의장 안에는 학생들의 통학 시간과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오랜 기간 이어진 개발 지연 문제 등 도민의 일상 속 다채로운 고민이 하나둘 올라왔다. 의원들은 제한 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발언을 이어가며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의장은 다음 순서를 정리하며 회의를 이어갔다.

정오 무렵, 본회의는 다시 절차와 표결의 시간으로 돌아왔고, 전자투표가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389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도 의결됐다. 전자투표 결과가 회의장 스크린에 표시될 때마다 의원들은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다.

본회의는 정오를 지나 마무리됐다. 봄 햇살이 내리쬐는 바깥과 달리 본회의장 안에서는 교육과 교통, 지역개발과 생활문제를 둘러싼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질문과 제안, 당부와 요청이 오간 제389회 임시회. 의사봉 소리는 회의의 시작과 끝을 알렸지만 회의장 안에서 오간 다양한 현안은 다시 도민의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2026. 4. 21.)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

- **경기도청**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박노극 경제실장, 김재훈 미래평생교육국장, 배진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성호 건설국장, 권주성 경제기획관, 현병천 미래성장산업국장, 김재홍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 조정주 농업기술원장, 이정화 인재개발원장
- **경기도교육청** 서은경 디지털인재국장

5분 자유발언

발언 의원 **8**명

(발언 순 기재)

발언 의원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
임상오 의원(국민의힘, 동두천2)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

본회의 참관

조만정 님 외 6인, 선경민 님(고양), 노경범 님(군포)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세월호 12주기 기억식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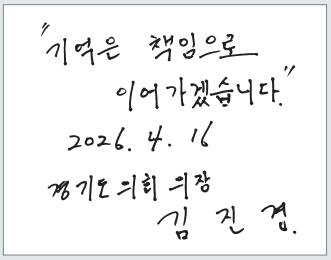


장애인 인권과 안전의 가치 강조
'기억과 책임' 추모의 글 남겨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4월 20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은 (사)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가 주최·주관했으며, 장애인 가족과 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인권헌장 낭독, 축사,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진경 의장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김진경 의장은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기념식 슬로건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준"이라며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하루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이 되고 있는 현실을 함께 허물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경 의장은 4월 16일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김진경 의장은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 뒤 방명록에 "기억은 책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정담회 개최

사례 중심 특강으로 결산검사 이해도 제고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4월 2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수원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교육 및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결산검사를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결산검사위원 13명을 비롯해 도청·교육청 집행부, 예산분석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전문가 특강과 정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정담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 집행부가 결산검사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도훈 의원(국힘, 비례)은 "결산검사는 도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이번 교육이 책임 있는 결산검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30개국 외신기자단과 소통



AI 시대 저널리즘 역할 강조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4월 2일 도의회 청사에서 '2026 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한 외신기자단을 맞아 환영 행사를 열고 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을 소개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대회 일정 중 하나로, 30여 개국에서 50여 명의 기자가 참석했다.

외신기자단은 경기도의회 의정관 '경기마루'와 본회의장 체험관을 둘러보며 디지털 의정 시스템과 운영 현황을 체험했다. 이어 정담회에서는 의회 소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인권, AI 대응, 자치분권, 남북 협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와 논의가 이어졌다.

박호순 의정국장은 "이번 방문이 외신기자들에게 한국 지방자치 발전상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AI 시대에도 저널리즘의 본질은 신뢰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외신기자단 방문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언론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정책 여정 담을 백서 제작 준비에 박차

표지·목차안 등 논의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공동단장 김성남(국힘, 포천2)·이영봉(더민주, 의정부2))은 3월 31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정정책백서' 제작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성남 공동단장을 비롯해 박재용 의원(더민주, 비례), 이오수 의원(국힘, 수원9) 등 의정정책추진단 위원들이 참석해 백서 표지안과 목차 구성, 주요 정책 성과 정리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김성남 공동단장은 "현재까지 주요 정책 성과와 추진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으며, 백서의 기본 틀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라며 "정책 성과가 도민의 삶에 미친 변화를 충실히 담아 백서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중간보고회(2026. 4. 22.)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홍보 집행 제도 개선 본격화

광고·홍보 구조 개편 연구 추진
공정성·투명성 강화 위한 노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양우식)는 의회 홍보 집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했다.

위원회는 4월 22일 의회운영연구회 주관으로 '경기도의회 광고·홍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기존 홍보 집행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연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공공 홍보 기준을 재정립하고, 예산집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구진은 현재 광고·홍보 집행이 정량적 지표 중심의 관행에 머물러 매체 간 변별력 부족과 형평성 논란, 디지털 환경 반영 미흡 등의 한계를 보여 준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역언론 생태계 변화와 온라인 중심 미디어 확산에도 불구하고 기존 평가 기준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성적 평가 기준 도입과 데이터 기반 집행체계 구축, 광고·홍보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



지역언론 육성과 경기도 홍보 집행 개선을 위한 지역언론 기자간담회(2026. 3. 31.)

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아울러 매체별 특성과 영향력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체계를 마련해 홍보비 배분의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또한 지역언론과의 상생 모델 마련과 함께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홍보 집행 기준을 제도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인 개선안과 조례안을 마련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며,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홍보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3월 31일에는 지역언론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 홍보비 집행 관행과 평가 기준의 한계를 점검했다. 기자간담회에서는 매체 다변화에 따른 언론 환경 변화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으며, 정성 평가 도입 등 실질적인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홍보 집행 공정성·투명성 확보, 지역언론과의 상생 구조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향후 조례 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홍보 집행 기준을 마련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정책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우식 위원장(국힘)은 "지역언론을 육성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도 외면당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적나라하게 짚어보고자 한다"라며 "과거의 관행이나 미진한 부분을 정밀하게 진단해 개선할 부분은 확실히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우식 위원장은 "지역언론의 디지털 기반 여건이 제각각인 만큼 법·제도적 쟁점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2026. 4. 21.)

기획재정위원회

민생 현안을 짚고 재정을 묻다

박진영 신임 부위원장 선출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 조례안」 등 심의 가결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4월 21일과 29일 제389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조직 재정비와 주요 안건 심의를 통해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위원회는 박진영 의원을 신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박명원 의원을 새롭게 위원으로 맞이하며 상임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했다. 위원들은 변화된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공백 없는 의정 운영과 안정적인 위원회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 민족통일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소송비용 면제 결의안」을 수정 가결하는 등 도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했다. 특히 화재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공공의 책임과 재정 투입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경의선 기반 DMZ 평화관광 협력체계 구축' 보고를 청취하며, 중앙정부 주도 사업이라 해도 주요 사업이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도가 더욱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실질적 성과 창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행정기구 정원 조정, 재정 운용 기준, 지역개발기금 운영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며 집행부와의 사전 소통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재정이 특정 지역이나 대상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조성환 위원장(더민주, 파주2)은 "민족통일 지원이나 화재 피해 구제 같은 사안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경의선 기반 평화관광사업은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핵심 사업인 만큼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라고 당부했다.

박진영 부위원장(더민주, 화성8)은 "존경하는 이경혜 부위원장님의 자리를 대신 맡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의원님들과 함께 재정건전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혜원 부위원장(국힘, 양평2)은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문제로 피해를 보거나 규제가 심한 소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이 확립되어야 한다"라며 "확보된 재원이 도민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검토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양우식 의원(국힘, 비례)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회가 요청한 정원이 미반영되어 있다"라며 "조례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그동안의 경과를 의회에 설명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오창준 의원(국힘, 광주3)은 "공공책임소재 재판에는 공공의 비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더 많은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도 예산이 편중되거나 누군가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제기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이석균 의원(국힘, 남양주1)은 "상임위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소통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한 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는데 시험 범위도 가르쳐주지 않고 시험을 통과하라는 격이다"라고 비판했다.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은 "새로 부임한 만큼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다"라며 "정파나 정당에 의존하지 않고 현안 해결을 우선하고, 도민 삶의 개선을 위해 매진하고 남은 일정 동안 성실히 활동하겠다"라고 밝혔다.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2026. 4. 21.)

경제노동위원회

청년금융·규제개혁·전통시장 안전 정비

기본금융기금 연장, 행정규제체계 개편 추진
민간위탁 두고 정책 타당성 집중 점검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는 4월 21일과 23일 제389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현안 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경제·노동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중심으로 행정규제 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했다. 조례명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규제 등록부터 심사·정비까지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규제의 전 생애주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체계가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처리했다.

4월 21일에는 경제실·노동국·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현안 보고를 통해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3일에는 경제실·사회혁신경제국·노동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규제개혁체계 정비를 중심으로 민생경제정책 기반을 점검하고, 신규 사업과 재정 운용의 타당성 검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은정 위원장(더민주, 고양10)은 "공모사업은 특성상 일정 지연 시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사업의 시급성과 절차적 검토를 함께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선영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확대되면 소관 부서의 역할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경기도 전반의 행정규제 관리체계가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재균 의원(더민주, 평택2)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는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소규모 재원 부족까지 지방채로 충당하는 구조는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병숙 의원(더민주, 수원12)은 "착한가격업소 정책은 물가안정과 소비 촉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지역화폐 연계나 민간 플랫폼 활용 등 새로운 방식의 홍보와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최민 의원(더민주, 광명2)은 "착한가격업소 정책과 관련해 단순 지원을 넘어 실질적 체감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홍보 강화와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도민들이 정책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남경순 의원(국힘, 수원1)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시범사업인 만큼 정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국힘, 용인5)은 "수익 구조와 돌봄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 없이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문제다"라며 "재원 배분과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원찬 의원(국힘, 수원6)은 "기존에도 태양광 관련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라며 "사업 목적과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2026. 4. 29.)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 시군의회 선거구 조정 관련 조례 심사

시군의원 정수 확대… 선거구 획정 형평성 논란
대표성, 지역 균형, 입법 절차 문제 제기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임상오)는 4월 29일 제389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다.

회의에서는 법정 시한 미준수와 촉박한 입법 일정으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또 선거구 획정 과정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위원들은 인구 기준에 따른 단순 조정이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인구 변동 현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지적했다.

또 중선거구제 확대와 관련해 법적 기준과 실제 획정 결과 간 충돌 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한계 등 제도적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선거구 조정의 형평성과 대표성 확보 필요성, 입법 절차 개선, 제도 보완 요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합리적 기준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에 개선을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상오 위원장(국힘, 동두천2)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입법 지연과 폐쇄적인 선거구 획정 방식은 지방자치 자율성과 의회의 입법 기능을 훼손하는 문제다"라며 "중앙정부와 국회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성근 부위원장(국힘, 평택4)은 "기초의원 선거구가 도의원 선거구 내에서 획정되지 않은 사례는 법 취지와 충돌되는 문제다"라며 "중앙선관위 해석을 이유로 불합리한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유경현 부위원장(더민주, 부천7)은 "선거구 획정은 단순한 인구 비례가 아니라 지역의 균형과 자치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쇠퇴한 지역일수록 대표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국중범 의원(더민주, 성남4)은 "단일 시점 인구 기준에 따른 획정은 재개발 등으로 인한 실제 인구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며 "향후 인구 유입까지 고려한 더욱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은미 의원(더민주, 안산8)은 "다문화가정 밀집 지역 등 행정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의원 정수가 감소하는 것은 대표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단순 인구 기준을 넘어 지역 특성과 행정 수요를 반영한 선거구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2026. 4. 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관광 추경 심사, 필요성·재정 원칙 동시 점검

삶의 질 높이기 위한 민생 회복형 예산편성
지방채 적정성 등 집중 질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4월 24일 제389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고물가·고금리, 중동발 경제위기 등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위축된 문화·관광 소비를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민생 회복형 예산으로 편성됐다. 위원회는 전통문화, 예술 진흥, 관광 활성화 등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또 국비 매칭 구조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재원 확보 방식과 지방채 활용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검토했다. 국비 확보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방채 발행 기준과 사업 간 우선순위 설정, 시군과의 협의 필요성 등에 대한 점검이 이어졌다.

회의에서는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사업 예측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일부 사업의 감액·증액 조정 과정과 자료 작성 오류, 예산편성의 세밀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관계 기관의 정교한 재정 운영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도민에게 실질적 체감 효과로 이어지도록 사업 집행과 정책 효과를 계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황대호 위원장(더민주, 수원3)은 “지방채 발행의 시급성과 적절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수요 예측과 사업별 집행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이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실질적인 체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윤재영 의원(국힘, 용인10)은 “지방채를 발행해 소규모 사업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는 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재정 운영 방식이다”라며 “순세계잉여금(한 해 쓰고 남은 순수 여유 재원)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 설명서의 오류와 예산편성 과정의 세밀성 부족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다”라며 “혈세를 사용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학수 의원(국힘, 평택5)은 “운영비·행사비 성격의 사업까지 지방채를 활용하는 것은 재정 원칙을 흔들 수 있다”라며 “지방채 발행 요건과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보다 엄격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례가 향후 재정 운영의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근거를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신중한 판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2026. 4. 21.)

농정해양위원회

농어업 지원·추경 예산 집중 점검

면세유 지원, 농가 부담 완화 등 현안 논의
추경 중심 재정 운용 및 현장 체감 정책 강조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는 4월 21일과 23일 제389회 임시회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농어업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농어업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21일 회의에서는 「경기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 현안 보고를 통해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23일에는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은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농어업 지원과 국비 매칭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농업·어업용 면세유 지원 확대와 유류비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의원들은 특히 면세유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며, 농기계의 종류와 유종 차이 등으로 지원에서 제외된 농가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어업용 면세유 지원 역시 일부 어업인이 제외되는 문제를 언급하며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추경이 국비 매칭 중심으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도 자체 사업 확대와 현장 체감형 지원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과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방성환 위원장(국힘, 성남5)은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농어민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형식적 예산이 아니라 실제 효과로 이어지도록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창식 부위원장(더민주, 남양주5)은 "면세유 제도는 종류와 절차가 복잡해 농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며 "고령 농업인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보다 간소화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종영 부위원장(국힘, 연천)은 "이번 추경이 국비 매칭 중심으로 편성되면서 자체 사업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라며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재정 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윤경 의원(더민주, 군포1)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사료비 상승이 현실화할 경우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라며 "현재는 단기 영향이 제한적이라 해도 상황 악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미리 의원(국힘, 남양주2)은 "농특산물 소비 촉진 협약과 관련해 공공배달 앱 등 기존 공공 시스템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민간 플랫폼을 중심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내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국힘, 용인2)은 "동물장묘시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민민 갈등과 지역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라며 "공공이 주도해 거점형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입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서광범 의원(국힘, 여주1)은 "면세유 지원 확대도 중요하지만 전기 요금 증가와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다른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2026. 4. 23.)

보건복지위원회

민생 안정 중심 복지정책 점검

장애인·노인·취약계층 지원에 역점
재정 운용 책임성 및 우선순위 중요성 강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는 4월 22일과 23일 제389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건의안 심사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며 복지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1차 회의에서는 장애인·돌봄·산후조리 등 복지 관련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와 시군 간 재정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의료비 지원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또 보훈유공자의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처리했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 시범 운영 위탁 동의안과 복지·보건 관련 현안 보고가 함께 이뤄지며 정책 실행 기반도 점검했다.

2차 회의에서는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민생 안정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더불어 복지예산이 경기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사업 우선순위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장애인·보훈·돌봄 분야 제도 정비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병행하며 복지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운영의 균형을 함께 검토했다. 앞으로도 복지정책이 도민 삶에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지도록 사업 집행과 재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선구 위원장(더민주, 부천2)은 "복지정책은 도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예산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라며 "추경 예산이 취약계층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효과가 체감되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황세주 부위원장(더민주, 비례)은 "신장장애인은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치료해야 하는 만큼 의료비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라며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책임 있게 임해 달라"라고 말했다.

고준호 부위원장(국힘, 파주1)은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법적 절차와 도의회 의결 과정이 충분히 검토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재정 운영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동규 의원(더민주, 안산1)은 "복지사업은 단순한 예산 확대보다 대상자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구조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며 "사업별 성과와 집행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용성 의원(더민주, 광명4)은 "국가를 위해 위기 때마다 헌신하신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재용 의원(더민주, 비례)은 "민생지원금 정책에서 정보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지원금이 일부 계층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며 "지원금의 취지가 '민생 회복'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함께 설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만식 의원(더민주, 성남2)은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수요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현장과 괴리된 사업 설계는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더욱 세밀한 기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태길 의원(국힘, 하남1)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 의료가 병원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현장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라며 "방문형 서비스 특성상 발생하는 안전 위험과 업무 소진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국힘, 비례)은 "극저신용대출사업은 재투입 구조와 운영비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라며 "전체 사업 규모를 기준으로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미연 의원(국힘, 용인6)은 "보훈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거주 지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불합리한 구조다"라며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전국 공통 기준 마련을 통해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2026. 4. 21.)

건설교통위원회

교통안전·광역교통 현안 집중 점검

픽시 자전거 안전 등 생활 밀착 정책 심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계획 점검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원)는 4월 21일과 23일 제389회 임시회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교통안전과 광역교통 현안을 중심으로 조례안과 건의안, 의견청취안, 2026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경기도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과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하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한 픽시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아울러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개선과 버스 정류소 관리 지원 등의 조례안을 통해 심의위원회 전문성과 운영 안정성 강화를 도모하고, 버스 정류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생활 밀착형 교통안전정책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2026년 및 2027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 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교통국과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의 주요 현안 보고를 통해 광역철도, 버스 운영, 교통안전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GTX, 광역철도, BRT 등 대형 교통사업 추진 현황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히 확인했다.

위원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교통안전과 인프라 구축 정책이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재정 집행의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원 위원장(국힘, 이천2)은 "오늘 심사하는 각 안건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각 안건이 실질적 정책 효과로 이어지도록 면밀히 검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동영 부위원장(더민주, 남양주4)은 "픽시 자전거 실태조사를 5년 단위 계획에 포함하는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이용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라며 "현장 상황을 고려한 보다 세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문병근 부위원장(국힘, 수원11)은 "픽시 자전거 이용 대상이 특정 연령층에 집중돼 있는 만큼 단순 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며 "현장 계도와 교육, 실질적 예방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옥분 의원(더민주, 수원2)은 "보상 단계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사업 지연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성수 의원(더민주, 안양1)은 "마을버스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인데도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향후 추경이나 정책을 통해 지원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성복임 의원(더민주, 군포4)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대수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실제 이용 수요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라며 "수요 반영과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안명규 의원(국힘, 파주5)은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지자체 간 노선 갈등과 재정 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며 "경기도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조정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명숙 의원(국힘, 양평1)은 "교통 혼잡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보상 지연 등을 이유로 사업을 미루기보다 현장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조기 착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국힘, 양주1)은 "대중교통과 교통시설은 도민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정책 영역"이라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서성란 의원(국힘, 의왕2)은 "교통안전정책은 제도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특히 위험 요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야는 더욱 적극적인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2026. 4. 23.)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과 관련해 조례·현안·추경 종합 점검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수상태양광 집중 논의
개발·환경정책과 재정 운용 전반 점검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시용)는 4월 22일과 23일 제3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도시·환경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 기반 정비에 무게가 실렸다.

먼저 위원회는 「경기도 개발사업구역 데이터클러스터 조성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개발사업구역 내 데이터센터 등 데이터 기반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미래도시 핵심시설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공공건설사업의 내실화와 부실 공사 예방을 골자로 한 「경기도 공공건설 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위원회는 의정부 호원지구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기부채납 예정 시설에 대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심사했다. 해당 안건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정책사업 추진으로 악화된 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 보고를 통해 GH 운영 실태, 제3판교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인력양성사업 등을 점검했다. 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정책 연계성을 확인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환경·주거정책이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시용 위원장(국힘, 김포3)은 "상정된 안건들은 도시개발·환경·주거정책 전반에 걸쳐 도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조례와 예산, 현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태희 부위원장(더민주, 안산2)은 "공공건설심의위원회와 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더 명확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며 "제도 개선이 행정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관리로 이어지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유영일 부위원장(국힘, 안양5)은 "데이터센터 입지는 주민 수용성과 지역 여건이 중요한 요소"라며 "시군과의 협력과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더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옥순 의원(더민주, 비례)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성이 큰 사업이다"라며 "따라서 예산 확대에 앞서 수요 예측과 집행 가능성을 보다 정교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종배 의원(더민주, 시흥4)은 "공공건설사업의 규모 확대와 환경 변화에 따라 기획 단계부터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품질관리와 부실공사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공공건설 서비스 적용 기준과 심의체계를 정비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유종상 의원(더민주, 광명3)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수요가 증가해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만 시장 변화에 따라 집행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증액 예산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더민주, 광주2)은 "임대주택 확대 정책은 단순 공급이 아니라 공공이 주도적으로 얼마나 확보하고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라며 "현물출자가 재정 확충 수단을 넘어 공공임대주택 확대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백현종 의원(국힘, 구리1)은 "GH 재정 계획과 정책 발표가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중요한 재정 사안일수록 의회와의 사전 소통과 검증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최승용 의원(국힘, 비례)은 "임대주택 관리와 비용 구조 문제는 실제 입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관리비 격차와 운영 문제까지 포함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2026. 4. 23.)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양자산업·AI 정책 기반 마련

양자 펀드 조례 제정, AI 바우처 수정 가결
미래산업 투자 및 인재 양성 정책 점검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는 4월 21일과 23일 제389회 임시회 회의를 열고 양자산업 육성, AI 정책 관련 조례와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미래산업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경기도 양자펀드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해 민간자본과 연계한 중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했다. 이어 차량 소프트웨어 실증 환경과 기업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 스마트모빌리티 실증허브 운영 및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은 이미 두 차례 부동의 된 안건으로 사업 구조와 세부 예산편성 내역이 쟁점이 됐다. 위원회는 홍보비를 감액하고 운영비를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여 사업 방향을 조정했다. 또 피지컬 AI 확산센터 구축, 반도체 인력 양성 협력 등 주요 협약과 현안 보고를 통해 미래산업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23일에는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재정 운용과 정책 연계성을 확인,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정책 연계성을 논의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양자·AI·반도체 등 핵심 산업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와 인재 양성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계속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제영 위원장(국힘, 성남8)은 "반도체산업은 경기도를 넘어 국가 미래산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클러스터 조성과 보상 문제 등 주요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석훈 부위원장(더민주, 성남3)은 "예산심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한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은 의회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라며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집행 과정에서의 변경 사항은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홍순 부위원장(국힘, 고양11)은 "미래산업 관련 사업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균형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며 "경기 북부 지역도 참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태형 의원(더민주, 화성5)은 "피지컬 AI 확산센터 사업은 협약 체결 시기와 절차가 중요한 만큼 의회 승인 이후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라며 "수행 기관 구성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상곤 의원(국힘, 평택1)은 "연구기관 인건비 같은 필수 경비는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경 편성에 의존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철현 의원(국힘, 안양2)은 "청소년 AI 바우처 사업은 단순 구독 지원 방식으로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교육 중심으로 구조를 재설계하고 교육청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윤충식 의원(국힘, 포천1)은 "반도체 인력 양성 협약은 목표와 성과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협약 이후 실질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제389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2026. 4. 23.)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청소년·가족·이민정책 기반 확대

청소년 대상 인공지능 윤리교육 관련 정책 개선
외국인·청년 지원 제도 정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는 4월 21일과 23일 제389회 임시회를 열고 청소년·가족·이민정책 관련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가결하며 청소년 대상 AI 윤리교육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학교밖청소년까지 포함해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태조사와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기도 결혼 친화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어 공공예식장 운영과 결혼 비용 부담 완화정책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산업재해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도 원안 가결되며 유가족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를 찾았다.

이와 함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변경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련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 의결됐으며,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업 추진 기반이 조성됐다.

23일에는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정책 실효성과 재정 운용 방향을 점검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청소년·가족·이민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문형근 위원장(무소속, 안양3)은 "추경예산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적재적소에 사용되고 있는지, 낭비 요소와 사각지대는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실질적인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동희 부위원장(더민주, 부천6)은 "중동정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해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체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실제 수요를 반영한 더욱 정교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진명 의원(더민주, 성남6)은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산정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소통 부족으로 예산상 차이가 생긴 것은 개선해야 할 문제다"라며 "유보통합을 앞둔 상황에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호준 의원(더민주, 남양주6)은 "인공지능 윤리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조례를 통해서도 관련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라며 "청소년만을 별도로 규정하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은 "학교 중심 교육으로는 학교밖청소년까지 충분히 포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는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효숙 의원(더민주, 비례)은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사업은 현장 만족도가 높고 추가 수요도 확인된 사업임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라며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격차 해소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국힘, 고양6)은 "추경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신규 사업이 다수 포함된 것은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국비 매칭이 아닌 사업은 편성 타당성을 보다 엄격히 따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은 "산업재해 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은 인권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예산 규모와 재정 부담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인애 의원(국힘, 고양2)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은 도비 미편성 시 국비 반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추경을 통해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2026. 4. 22.)

교육기획위원회

특수교육 및 교육정책 제도 정비

학생 맞춤 지원 및 정책연구용역 관련 조례 심사
특수교육원 운영 방향, 지원체계 점검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안광률)는 4월 22일 제389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심의와 특수교육원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교직원 지원과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연구체계 정비와 관련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었고,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 통합지원 조례안」은 학습·복지·정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또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기획부터 수행, 평가까지 관리체계를 강화해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특수교육원 업무보고를 통해 현장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와 진로·직업교육 강화 방향을 점검했다. 특히 특수교육원 리모델링 사업과 행동 중재 지원체계, 장애 학생 진로교육 운영 방식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운영 방향과 예산 구조를 집중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제도 정비와 정책 실행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안광률 위원장(더민주, 시흥1)은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보조교사 확충과 실질적 지원체계다"라며 "AI와 로봇 등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한 특수교육 직업교육 방향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택수 부위원장(국힘, 고양8)은 "교육정책은 단기 성과보다 지속적인 운영체계가 중요하다"라며 "경기도의 특수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중장기적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윤정 부위원장(더민주, 안산3)은 "특수교육 지원체계는 도민 입장에서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라며 "홈페이지 정보 연계 오류와 지원 절차의 복잡성을 지적하고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김영희 의원(더민주, 오산1)은 "행동 중재 특화 전문 기관을 표방하면서도 전문가 양성체계와 예산 규모가 충분한지 의문이다"라며 "전문성을 조금 더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성기황 의원(더민주, 군포2)은 "기존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라며 "광역 단위 기관으로서 더욱 차별화된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신미숙 의원(더민주, 화성4)은 "특수교육원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예산 배분이 비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한 근거가 보여야 한다"라며 "특히 장애 유형별 진로·직업교육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수 의원(국힘, 하남2)은 "특수교육원 리모델링 과정에서 개방형 도서관 설치가 기관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행동 중재 지원체계와 예산 구조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현석 의원(국힘, 과천)은 "특수교육정책은 기관 간 연계와 협력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효과가 난다"라며 "교육지원청과 특수교육원 간 역할 분담과 협업 구조를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제389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2026. 4. 21.)

교육행정위원회

학생 중심 교육정책, 제도 정비로 답하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 7건 심의
신임 교육장 및 기관장 소개, 협력 기반 강화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는 4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소관 조례안 등 7건을 심의·의결하며 학생 중심의 제도 정비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학교 신설 18건, 학교 신·증·개축 13건 등의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 교육·학예 표창, 영재교육 진흥, 인문학교육 진흥, 우수선수 포상, 스포츠클럽 협력, 금융교육 활성화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은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수정 가결됐으며, 그 밖의 조례안 4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조례 제·개정으로 교육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변화하는 시대상을 교육에 반영해 학생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3월 1일 자로 교육장에 임명된 안양과천·광주하남·이천·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의 신임 교육장과 미래과학교육원, 미디어교육센터의 신임 기관장에 대한 인사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새로 부임한 교육장과 기관장이 지역 교육 현안을 신속히 파악해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교육청과 도의회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의 기반을 강화했다.

이애형 위원장(국힘, 수원10)은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라며 "집행 부서에서는 오늘 통과된 안건들이 교육공동체 전체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근용 부위원장(국힘, 평택6)은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라며 "각 사업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은주 의원(국힘, 구리2)은 "통합교육지원청은 2개 시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교육장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라고 지적하고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건강에도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일중 의원(국힘, 이천1)은 "지역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교육정책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며 "교육장님들께서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5분 인사이트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11대 의원들이 경기도민을 대표해 심의 의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발표한 의견을 모았다.



"흔들리는 경기교육, 신뢰 회복 위한 전환 필요"

황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원3)

최근 벌어진 학교폭력 처리 논란, 교사가 희화화된 AI 홍보 영상, 학생인권조례 갈등 등 일련의 사건은 리더십 부재와 왜곡된 교육철학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학생과 교사를 갈등 구도로 몰아 넣어서는 안되고, 그 어떤 것도 교육의 본질을 앞서서는 안됩니다. 경기교육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성찰과 근본적 교육행정 전환을 촉구합니다.



"7년째 표류하는 평생교육문화원, 약속 지켜야"

신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4)

7년째 제자리걸음인 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사업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수차례 협약과 계획 변경에도 사업은 진척되지 않았고, 예산은 증가하며 도민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업 지연을 더는 반복하지 말고,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즉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도정질문에서 제기했음에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종이행정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군 협력체계는 컨트롤타워 없이 형식적 답변뿐이고, 조직·권한·예산 모두 실질적 변화가 없습니다. 위기 대응에 필수인 협력 모델은 부재합니다. 또 모현읍 고교 신설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군 협력체계 구축과 모현고 신설, 보고서가 아닌 실행으로 답해야 합니다.



"종이 위에 멈춘 행정, 이제는 실행으로 답해야"

이영희 의원
(국민의힘, 용인1)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도시형 캠퍼스 도입을 촉구합니다. 위례 지역 학교는 수용 한계를 넘어섰고, 특별교실 전용 등으로 정상 교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 실패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근본 대책 없이 검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캠퍼스라는 해법이 있는 만큼 이젠 실행해야 합니다. 전담 조직과 신속한 추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과밀학급 해법으로 도시형 캠퍼스 도입 촉구"

이상원 의원
(국민의힘, 고양7)



“2~3시간 통학 현실, 고교배정제도 개선 시급”

김동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6)

부천시 고등학교 배정 과정에서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형식적 공정성은 있으나, 일부 학생은 하루 2~3시간 통학을 감수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근거리 우선 배정 확대, 생활권 중심 지망 구조, 통학 시간 기준 도입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15년 지연된 광명 개발,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

유종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3)

15년 넘게 이어진 개발 지연 속에서 광명시민의 삶은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광명시에는 신도시 보상 지연, 산업단지 분양 문제, 재건축 한계, 교통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 문제를 넘어 도시 전체의 구조적 위기입니다. 보상 착수, 재건축 지원, 철도사업 추진까지 경기도의 적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수소차는 늘었지만 도민의 불편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충전소 부족과 요금 격차, 운영 편차로 인해 이용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경기 북부의 격차는 심각합니다. 정책의 기준은 보급이 아니라 이용입니다. 수소차 정책을 이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북부 맞춤형 대책과 운영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소차 늘었지만 불편은 여전, 이용 중심 정책 필요”

임상오 의원
(국민의힘, 동두천2)

수년째 반복되는 고양시 현안, 이제는 “왜 아직도”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 경제자유구역, K-컬처밸리,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고양시 핵심 사업이 모두 성과 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논의가 아니라 결과로 답해야 합니다.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결에 나서고, 남은 임기 동안 책임 있는 성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고양시 현안 지연, 결과로 답할 때”

심홍순 의원
(국민의힘, 고양11)

Chapter 2



삶의 20



하루의 표정은
멀리서 바뀌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의 작은 변화가
일상을 조금씩 바꿉니다.
한 번 더 듣고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일.
그 온기를 지켜가겠습니다.



모란민속5일장부터 탄천 나들이까지

시장의 온기 + 강변의 여유

햇살이 따뜻해지는 5월, 하루를 오롯이 채워주는 길이 있다.
지하철 8호선 모란역에서 시작해 모란민속5일장, 탄천, 모란오거리, 수진공원,
성남중앙공설시장을 지나 다시 모란역으로 돌아오는 순환형 나들이 코스다.
재래시장의 활기와 강변의 여유, 그리고 공원의 쉼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일상을 한층 밀도 깊게 만들어준다.

글 유현경 **사진** 성남시청



▲ 모란민속5일장

❶ 일상의 리듬이 출발하는 곳, 모란역

모란역은 성남의 대표적 생활 중심지다. 역을 나서자마자 이어지는 사람들의 움직임과 거리의 활기는 이곳이 우리 삶터임을 보여 준다. 5월의 모란은 특히 활기차다.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과 나들이를 즐기는 방문객이 어우러지며 거리에 생기가 돈다. 이곳에서의 출발은 특별한 준비 없이도 충분히 여행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한다.

tip 5번 출구 이용 시 동선 편리. 주말 및 장날은 혼잡. 편의시설 이용 용이.

여행 코스

- 시장·장터·강변·공원을 함께 즐기는 순환형 도보 나들이
- **추천 계절** 5~6월, 9~10월
- **이동 난이도** 전 구간 도보 가능, 일부 구간 버스 이용 가능

모란역
모란역 5·10번 출구 → 장터 방향 이동 : 도보 5~10분

모란민속 5일장
장터 끝에서 탄천 방향으로 이동 : 도보 10~15분

탄천 산책로
산책 후 모란오거리 방향으로 이동 : 도보 10~15분

모란 오거리
수진공원 방향으로 직진 이동 : 도보 10~15분

수진공원 (황톳길)
시장 방향 이동 : 도보 15분

성남중앙 공설시장
시장 골목 따라 모란역 방향 이동 : 도보 15~20분, 버스 10분



모란역





▲ 탄천 수진습지



❷ __ 살아 있는 장날의 옛 풍경, 모란민속5일장

모란역에서 가까운 모란민속5일장은 첫 번째 코스로, 매월 끝자리 4일과 9일 닷새마다 열리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민속5일장이다. 상설시장으로 운영되다 장날이면 규모가 크게 확장되어 성남 전체가 들썩일 정도로 활기가 넘친다. 다양한 물건과 먹거리, 사람들 소리가 어우러지고 전통적 장터 분위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 걷는 것만으로도 볼거리가 풍부하다. 물건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장소다.

tip 장날(4일·9일) 방문 시 규모 확대. 현금 준비 시 편리. 오전~점심 시간대 혼잡.

❸ __ 흐르는 풍경 속으로, 탄천 산책

장터의 활기를 지나 탄천으로 방향을 돌려보자. 넓게 펼쳐진 산책로와 물길, 그리고 초록이 어우러진 풍경이 시야를 시원하게 열어준다. 5월은 탄천을 걷기 가장 좋은 시기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오고, 햇살은 따뜻하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던 발걸음이 이곳에서는 자연의 흐름에 맞춰 천천히 이어진다.

tip 평탄한 길, 유모차·자전거 이용 가능. 벤치·그늘 구간 다수. 40~60분 여유 산책 추천.

❹ __ 생활과 문화가 만나는 교차점, 모란오거리

탄천에서 올라오면 다시 도심 한복판임을 실감한다. 모란오거리는 다양한 길이 교차하는 공간이자, 생활과 문화가 만나는 지점이다. 주말에는 소규모 공연이나 거리 문화가 펼쳐져 짧게 머무르며 둘러보기 좋다. 자연에서 다시 도시로 이어지는 완만한 전환 구간이다.

tip 주말·행사 시 공연·버스킹 진행. 짧게 머물며 둘러보기 적합.

▼ 성남중앙공설시장





▲ 수진공원(황톳길)

❺ __ 맨발로 느끼는 쉼, 수진공원 황톳길

모란오거리에서 이어지는 수진공원은 이 코스 중 가장 편안한 공간으로, 황톳길을 맨발로 걸으며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 따뜻한 흙의 감촉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자연스럽게 풀어준다. 시장과 장터, 강변을 지나온 뒤 이곳에서의 시간은 소박하지만 여유 있고, 평화로우며 편안하다.

tip 황톳길 이용 시 수건·물티슈 준비 필요. 세족 시설 이용 가능. 우천 후 미끄럼 주의.

❻ __ 다시 만나는 시장의 온기, 성남중앙공설시장

수진공원에서 조금만 걸으면 성남중앙공설시장이 나온다. 북적북적한 5일장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지역의 일상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는 공간이다. 깔끔하게 정돈된 가게들과 다양한 먹거리, 상인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며 시장 특유의 온기를 느낄 수 있다. 여행의 끝에서 다시 만나는 시장은 처음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tip 첫째·셋째 주 일요일 정기 휴무. 실내 시장이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음. 고객 쉼터에서 휴식 가능. 간단한 식사 및 간식 취식 때 이용 추천.

❼ __ 다시 출발점으로, 가벼워진 발걸음

성남중앙공설시장에서 모란역으로 가려면 더 가까이 있는 태평역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기왕 나선 길, 모란역을 향해 좀 더 걸으면서 5월의 햇살을 만끽하는 것도 괜찮다. 이 코스는 시작과 끝이 같은 자리지만, 그 사이의 경험은 결코 같지 않다. 시장의 활기에서 시작해 자연의 여유를 지나 공원의 쉼으로 이어진 하루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소박하고도 현실적인 나들이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충분히 풍성한 하루를 만들어주는 길이 이곳에 있다.

tip 태평역 도보 5~7분. 모란역 도보 15~20분. 버스 이용 가능. 편안한 운동화 필수.





빛을 만나는 길,

그림을 만나는 하루

빛과 그림은 뗄 수 없는 관계다.
빛이 비추는 사물이나 현상을
캔버스에 담은 예술적 결과물이
그림이기 때문이다.
평소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박주연 씨는 이런 점을 고려해
빛과 그림을 연이어 만날 수 있는
양주 나들이 코스를 구상했다.
덕분에 그림처럼 빛나는 하루가
완성됐다.

글 강진우 **사진** 고평주

QR코드를 검색하면 박주연 도민님의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조명박물관 |

조명과 함께 반짝거린 예술적 감성

우리는 집과 일터는 물론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빛을 내뿜는 조명과 함께 살아간다. 하지만 정작 조명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기회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양주시 한편에 자리 잡은 조명박물관은 이 같은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 조명 회사가 2004년 설립한 국내 유일의 조명 전문 박물관이다.

주차장에서 만난 박주연 씨는 "예술에 대한 관심과 조명을 향한 호기심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라며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야트막한 경사로를 통해 박물관에 들어선 그는 도슨트의 안내에 따라 먼저 조명역사관으로 향했다.

조상들이 사용했던 등화구를 관람하며 인류 문명의 발전사를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된 이곳에서는 불씨를 보관하는 화심, 등잔을 걸어놓는 등경, 말 그림자가 빙빙 돌게 만든 주마등, 책 읽을 때 사용하는 서등 등이 관람객을 맞이했다. 두 번째 전시관인 근현대전시관에는 성냥의 발명부터 최신 LED 조명까지 그간의 조명 발전사가 보기 좋게 도열해 있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아무런 불편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 눈높이를 맞추고 경사로를 완벽하게 설치한 점이 특히 눈에 띄었다. 박주연 씨는 전시물 하나하나를 유심히 관찰하며 도슨트의 설명을 귀담아들었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며 지식의 등불을 하나씩 켜나갔다.

한편 유럽인들의 시대적 예술성을 엿볼 수 있는 조명역사관 엔틱관에서는 박주연 씨의 감탄사가 연신 터져 나왔다. 다채롭고 아름다운 형상의 샹들리에, 촛대, 스탠드 등이 그의 감성을 자극한 것이다. 뒤이어 등장한 노상희 작가의 체험형 전시물을 둘러보던 박주연 씨는 빛이 선사하는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하다가 끝내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빛과 조명에 이런 감동적 아름다움이 있는 줄 미처 알지 못했





네요. 정말이지 보물 같은 박물관입니다.”
세계 각국의 크리스마스 풍경을 테마 삼은 크리스마스빌리지를 비롯해 지하 1층 구석구석까지 관람한 박주연 씨가 조명 만들기 체험에 돌입했다. “만들기를 좋아해요. 3년째 홈패션 강좌도 듣고 있을 정도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능숙한 손놀림으로 배경지를 자른 그가 순식간에 반딧불이 조명을 완성했다. 서서히 켜지고 꺼지기를 반복하는 조명들을 바라보는 박주연 씨의 눈빛이 기쁨으로 반짝거렸다.



|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

순수함과 평온함을 일깨운 동화 같은 화풍

각종 조명이 선사하는 빛을 만끽한 박주연 씨는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다음 행선지인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으로 향했다. 한국 근현대미술의 거장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장욱진 화가는 동화적이면서도 심플한 표현과 독창적인 색채의 작품을 다수 남겼는데, 이 같은 면면이 박물관 벽 곳곳에 걸려 있다.
장욱진미술관으로 향하는 길목에는 이 지역의



풍요로운 자연과 조각상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흥조각공원이 자리해 있었다. 아침에는 흐린 얼굴을 한 채 햇살을 좀처럼 보여 주지 않던 하늘이 마치 박주연 씨가 여기에 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청명한 모습으로 변모하자, 박주연 씨가 "때마침 이런 날씨를 맞이한 건 행운"이라며 기꺼이 조각공원 곳곳을 누볐다. 그가 각각의 독특한 창의성을 뽐내는 조각들을 감상하며 행복 가득한 웃음을 지었음은 물론이다.

조각상들과의 특별한 산책을 마친 박주연 씨는 곧바로 미술관으로 향했다. 상시 전시실에서는 장욱진 화가의 상설전 <까치를 닮은 화가>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화가의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까치를 중심으로 그의 미학과 인생관을 조명하는 전시였다. 마치 아이가 동화 속 세상을 그린 것처럼 단순한 화풍을 내비치면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천진난만한 감동을 품고 있는 장욱진 화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박주연 씨의 모습은 사뭇 진지했다. 상당한 시간을 들여 작품 하나하나를 살펴본 뒤, 그가 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역시 거장답게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작품을 그리셨네요. 오랜만에 온전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집에 가기는 아쉽다는 뜻을 밝힌 박주연 씨는 미술관 한편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봄날 오후의 기분 좋은 햇살이 카페의 넓은 창을 통과해 들어오고 있었는데, 바깥 풍경을 조망하고 있자니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조각공원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을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보던 박주연 씨가 힘이 실린 목소리로 생각을 전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자유롭게 세상 곳곳을 다니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오늘 다닌 조명박물관과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처럼 장애인도 불편 없이 관람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가 앞으로 더욱더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마치 그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창밖 하늘을 훨훨 날아가던 까치가 '깍깍' 크게 울었다.







✱여행지 Information

◉ 조명박물관

인류와 함께해 온 조명의 역사와 시대별·지역별 다양한 조명을 관람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조명 전문 박물관이다. 전 세계의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구성된 전시관과 조명 만들기 체험존이 마련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235-48
070-7780-8911

◉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장욱진 화가의 작품이 모여 있는 미술관이다. 후대 작가의 주제 기획 전시도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미술관으로 향하는 길목에 조성된 장흥조각공원에서는 양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다채로운 조각상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93
031-8082-4245



고산자 길을 그리다

古山子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찾은 조선의 지리학자 김정호

조선 후기 '대동여지도'를 제작한 지리학자 김정호(고산자)가 현대 경기도의 한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찾았다. 주민과 아이들이 VR 횡단보도와 전동휠체어 체험장을 둘러보는 가운데, 도포를 입은 그는 낯선 장치들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다. 안내인은 이 모든 공간이 조례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고산자는 길을 그리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길 위의 안전까지 설계하는 시대를 바라본다.

글 편집실 **일러스트** 챗GPT





길을 배우는 공간

전시 안내인 ___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보고, 어르신들은 전동휠체어로 도로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만들어 위험을 미리 경험해 보는 교육입니다.

주민 ___ 이런 시설이 가까이에 있으니 안심이 되네요.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안내인 ___ 네, 이런 체험시설을 시군마다 갖추도록 한 데에는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조례 덕분에 도가 설치를 지원하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이동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김정호 ___ 길을 눈으로만 익히던 시절과는 사뭇 다르오. 이제는 몸으로 위험을 먼저 겪어보고 대비하는 것이로군요.

체험 프로그램 교사 ___ 맞습니다. 사고를 겪기 전에 배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니까요.

안전을 설계하는 일

김정호 ___ 어찌 이런 체험장이 마련되었는지, 누가 길을 닦아주었는지 알고 싶소.

김성수 의원(더민주, 안양1) ___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도의원 김성수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모든 시군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민 ___ 직접 체험하며 배우니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김성수 의원(더민주, 안양1) ____ 그렇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보행 사고가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직접 경험하는 교육은 그러한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김정호 ____ 예전에는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했소. 이제는 다치지 않는 것이 더 큰일이 되었구려.



⚠ 길 위의 사람을 키우다

버스 운전 연수생 ____ 이곳에서는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실제 운행에 필요한 역량을 배웁니다.

김정호 ____ 길이 있어도 그 길을 지킬 사람이 부족하면 어찌 되겠소.

버스 운전 연수생 ____ 맞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버스 기사 부족으로 일부 노선 운행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인력 양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영민 의원(국힘, 용인2) ____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지원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교육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고, 안정적인 운행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민 ____ 결국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이 더 편리해지고 안전해지는 거네요.

김영민 의원(국힘, 용인2) ____ 네, 단순히 부족한 자리에 사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책임질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김정호 ____ 우리 시대에는 수레를 모는 일도 사람 손에 달려 있었소. 이제는 그 손을 기르는 데 나라가 힘을 보태는군요.

⚠ 길의 의미를 다시 묻다

버스 운전 연수생 ___ 선생님, 조선시대에도 이런 준비가 있었나요?

김정호 ___ 내가 지도를 만든 것은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소. 그러나 그 길이 안전한지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지요. 지금은 체험시설과 양성사업 같은 제도를 통해 길을 안전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키우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교통 안내인 ___ 조례는 그런 변화를 만드는 기반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상을 바꾸는 장치죠.

김성수 의원(더민주, 안양1) ___ 도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도의원으로서 우리의 역할입니다.

김영민 의원(국힘, 용인2) ___ 길을 만들고 그 길을 지킬 사람을 준비하는 일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호 ___ 나는 길을 그렸고, 그대들은 길 위의 삶을 살피고 있소. 시대는 달라도 사람을 향한 마음은 이어져 있음을 알겠구려.



***

길은 더 이상 단순한 이동 통로가 아니다.
그 위를 지나는 사람의 안전과 삶까지 함께 품는 구조가 되었다.
경기도의회의 조례는 도민의 일상을 조용히 바꾸고 있다.

의료 지원과 통합교육으로 배움을 완성하는 경기도의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의 배움은 비로소 깊어진다.
경기도의회는 교실 안팎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히 살피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온전히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들어간다.

글 유현경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학교 내 의료 지원

학교는 배움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함께 보장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학교 안에서 체계적으로 지원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이런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인규 의원(더민주, 동두천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5년 6월 27일 본회의

를 통과했다. 이는 전국 최초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의료적 처치를 보장하고 특수교사, 보호자, 활동지원사 등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이들의 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핵심은 학교 내에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와 지원체계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교 내에서도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호자의 부담은 줄고, 학생은 안정적 환경에서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인규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교육과 생명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학생 건강권은 물론 현장 구성원들의 불안과 부담을 덜어내는 제도적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교육 기반 넓히는 함께 배우는 교실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는 교육 환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 특히 경기도 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성 발달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통합교육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통합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학교 현장에서도 지원 기준과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김선희 의원(국힘, 용인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25년 7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통합교육 지원정책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통합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다. 학교 현장은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환경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써 모든 학생이 함께 배우는 교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을 강화했다"라며 "앞으로도 장애 학생의 요구와 인권 존중을 위한 정책과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인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내 의료적 지원에 관한 조례」와 김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바탕으로 학교 내 의료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차별 없이 함께 배우는 교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뒤에 서 있었다

도민의 하루 속에 스며 있는 작은 불안과 안전에 대한 물음을 따라, 그 목소리를 대신하는 경기도의회가 문제를 마주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야기로 담아냈다.

글 강나은 **일러스트** 챗GPT

1화 놀이터에 나타난 남자

토요일 오후, 지후가 놀이터에서 돌아왔다. 일곱 살 아이의 얼굴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평소라면 미끄럼틀, 친구 얘기를 쏟아냈을 텐데 오늘은 현관에 가방을 내려놓고 가만히 신발을 벗었다.

"재밌게 놀았어?"

"응, 근데 엄마."

"응?"

"아저씨가 뒤에 서 있었어."

수연은 설거지를 멈추지 않았다. 놀이터에는 원래 어른이 많다. 배달 기사님도 장 보러 가시는 할아버지도 강아지 산책시키는 이웃도 지나간다. 그래서 "그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뒤에 계속 서 있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겠지."

"…응."

지후는 그날 이후로 놀이터에 혼자 가지 않았다. 친구가 부르면 집 앞까지는 나가지만, 놀이터 입구에서 한 번 멈춰 서고는 했다. 뒤를 돌아보는 일도 많아졌다. 수연은 지후의 이런 습관이 마음에 걸렸다.

일주일 뒤, 아파트 단지 맘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102동 앞 놀이터에 저녁마다 서 있는 남자 혹시 보신 분?"

댓글이 빠르게 붙었다. "봤다", "우리 아이도 겁낸다", "말을 건 적이 있는데 말이 어눌해 더 이상했다".

2화 뒤에 선 사람

"엄마, 아저씨가 같이 가자고 했어."

수연은 사과 깎던 손을 멈췄다.

"뭐?"

"놀이터에서. 같이 가자고."

"어디로?"

"몰라. 그냥 같이 가자고."

지후는 그 말을 하고는 거실로 갔다. 일곱 살 아이의 얼굴에는 아직 그 말의 무게가 다 내려앉지 않은 것 같았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가슴이 먼저 뛰고 머리가 뒤늦게 따라왔다.

그날 저녁, 수연은 관리사무소로 갔다.

"놀이터 CCTV는요?"

"그쪽으로 설치된 게 있긴 한데, 고장이 나서…."

"그러면요?"

"일단 아이의 진술을 정리해 올려보겠습니다. 다만 현장을 보신 분이 없으면 저희도 판단하기가…."

판단은 유보되었다. 수연은 관리사무소를 나오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때마침 옆 동네에서 아동이 실종되었다는 뉴스가 떴다. 범인의 인상착의에 앞서 '아이 뒤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라는 표현이 반복해 실렸다. 단지 맘카페 분위기는 하루 만에 뒤집혔다. 사진 한 장 없이도 모두가 같은 얼굴을 그리고 있었다. "말이 어눌하다더라", "직장이 있긴 한 거냐", "왜 혼자 놀이터를 도느냐". 글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붙었다. 누군가는 경찰에 신고했다 했고, 또 누군가는 아이들을 당분간 내려보내지 말자고 썼다. 이후 놀이터는 며칠 동안 비어 있었다.



"엄마,
아저씨가 같이
가자고 했어."

※ 알림

이 소설은 작가의 창작 논픽션으로, 상황과 세부 내용은 경기도의회의 실제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열흘쯤 지난 토요일 오후, 단지 입구 경비실에 한 여자가 들렀다.

"제 동생이 이 단지 놀이터에 자주 들릅니다. 말이 좀 어눌해서 오해가 많으실 텐데요."

남자의 누나였다. 누나는 가방에서 오래된 신문 기사 스크랩을 꺼내 보여 주었다. 1년 전, 다른 동네 놀이터에서 한 아이가 낯선 성인을 따라갈 뻔한 사건이었다. 그 아이는 남자의 조카였다. 남자는 그날 조카 뒤에 서 있다가 달려갔다.

"그 뒤로 동생이 저녁마다 놀이터를 돌아요. 다른 아이들도 뒤에 혹시 누가 서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본인은 말을 못 하니까 서 있는 걸로 대신하죠."

경비 아저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기사를 들여다보았다. 이야기는 곧 단지에 번져나갔다. 그러나 '뒤에 서 있던 아저씨'라는 말은 이미 다른 의미로 굳어 있었다. 누나의 설명은 사실을 바꿨지만 먼저 퍼진 말의 뜻까지 되돌리지는 못했다.

며칠 뒤 수연은 다시 지후에게 물었다.

"그날 아저씨가 같이 가자고 한 게 정확히 뭐였어?"

지후는 조금 생각하다가 말했다.

"저쪽 아저씨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엄마한테 같이 가자고. 나는 엄마한테 가는 길인데 왜 같이 가냐고 물었어."

수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같은 말이었다. '아저씨가 같이 가려 했다.' 그러나 그 말이 가리킨 방향은 전혀 달랐다.

3화 도의회, 안전을 묻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오늘 안건 중 하나는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방범설비(CCTV) 관리'였다. 쉽게 말해,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CCTV 관리를 도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내용이었다.

정유리 의원이 마이크를 가져왔다.

"도내 공동주택 놀이터에 방범 CCTV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로 작동하는지 정기적 점검이나 관리는 미비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지원 항목을 명확히 넣어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유리 의원은 자료 한 장을 들어 보였다.

"한 아이는 '아저씨가 뒤에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그 아저씨는 '아이 뒤에 서 있던 어른을 봐 걱정됐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지원 항목을 명확히 넣어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저씨가 뒤에 서 있었고, 확인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이 말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면은 아니었죠."

두 시간의 논의 끝에 개정안은 수정 의결되었다.

경기도가 도내 시군과 함께 미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에 CCTV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의무화하는 조건이 붙었다. 불안이 아닌 안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느다란 줄을 긋는 것이 이 회의의 성과였다.

4화 유리눈이 뒤에 서 있다

5월 첫째 주, 단지 놀이터에 고화질 CCTV가 새로 설치되었다. 입구 기둥 위, 미끄럼틀 옆, 화장실 방향 등 세 대였다. 설치 안내문이 붙은 날, 아이들이 기둥을 올려다보며 손가락질을 했다.

"저기 뒤에 유리눈이 있어!"

"저거 유리눈이 아니고 카메라야."

"똑같잖아."

수연은 베란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후가 친구들과 뛰어다니다 뒤를 한 번 돌아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앞을 보고 달렸다. 뒤를 보는 시간이 짧아졌다. 수연은 조금 안심했다.

그날 저녁, 지후가 오랜만에 혼자 놀이터에 내려갔다.

"엄마, 잠깐 놀다 올게."

"전화해." "응."

지후는 그네를 타다가 미끄럼틀을 한 번 타고는 벤치에 앉았다. 그러고는 습관대로 뒤를 돌아보았다. 사람은 없었다. 기둥 위에서 둥근 렌즈가 조용히 반짝였다.

"유리눈이 뒤에 서 있다."

지후는 혼잣말을 했다. 무섭지도, 반갑지도 않은 조금 무덤덤한 목소리였다. 그러고는 다시 그네로 돌아갔다.

같은 시간, 퇴근길의 남자도 단지 입구를 지나갔다. 그는 놀이터 쪽으로 잠시 고개를 돌렸다가 곧장 집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기둥 위 렌즈가 조용히 그 뒷모습을 담았다. 그는 더 이상 놀이터 뒤에 '혹시나' 하는 불안함을 안고 서 있을 필요가 없었다.

놀이터는 밝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고르게 흩어졌다. 바뀐 게 있다면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다른 것이 대신한다는 거였다.

놀이터 위로 저녁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유난히 깔끔했던 강일출 할머니는 늘 주변을 정갈히 하고, 귓속말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며 먼저 손을 내밀 만큼 다정한 분이었다. 또 누구보다 꽃을 사랑해 꽃 앞에서 오래 머물고, 직접 일군 텃밭을 보며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낯선 타국에서 마주했던 모진 세월을 품고도 누구보다 당당했던 강일출 할머니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매해 꽃처럼 다시 피어날 것이다.

글 강나은 **사진** 고평주

손수 심은 나눔의 집 꽃처럼 매해 피어날 우리의 기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_____ 고(故) 강일출 할머니

빼앗긴 열일곱, 살아낸 시간

강일출 할머니는 경상북도 상주의 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학교에 다녔다. 하지만 일제가 어린 여자아이들을 차출한다는 소문에 학교에 갈 수 없는 날이 많아졌고, 그러다 마을 이장의 밀고로 결국 위안소로 끌려갔다. 꽃 같은 열일곱 나이에 중국까지 가게 된 할머니는 온갖 폭력과 고통에 시달렸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일출 할머니는 장티푸스에 걸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일본군은 그런 할머니를 장티푸스를 옮길지 모른다며 산으로 끌고 가 불태워 죽이려 했다. 다행히 할머니는 당시 일본군이던 조선 사람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했다. 이후 강일출 할머니는 중국군에 간호사로 입대했고, 전역 후에도 30여 년간 간호사로 근무했다. "병석에 누워 계실 때 간호사가 혈관을 찾지 못하면 대신 혈관 위치를 알려 주셨어요. 그러면 정확히 혈관 자리더라고요." 중국에서 아들과 함께 만두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강일출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는 직접 서류를 준비해 시민단체에 연락하셨다. 그렇게 할머니는 고향을 떠난 지 56년 만에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나누는 사람, 기억되는 사람

강일출 할머니는 나눔의 집에서도 소문난 멋쟁이였다. 자녀가 사다 준 예쁜 옷을 입고 늘 깔끔한 모습을 유지



> 후세가 잊지 않고
> 기억하는 것, 그것만이
> 할머니들의 마지막 소망을
> 이루는 길입니다.



하셨다. 게다가 맛있는 간식이 생기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나눠 드셨다. 수많은 할머니가 계셨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강일출 할머니는 봉사자들에게 정을 많이 주셨다. 그 정에 흠뻑 빠진 봉사자 중 한 명이 요양보호사 김보미 씨다. 1994년 당시 나눔의 집 건물은 조그마했고, 할머니들은 그곳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계셨다. 사업을 정리한 뒤 나눔의 집에 봉사하러 온 김보미 씨는 그때 강일출 할머니를 처음 만났다. 김보미 씨는 다른 할머니보다 유독 강일출 할머니에게 마음이 갔다고 한다. 김보미 씨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던 강일출 할머니의 자녀들은 강일출 할머니가 병원으로 가시는 순간에도 그가 할머니를 계속 돌봐주길 바랐다.

손을 잡고 잠들던 밤

김보미 씨를 '우리 이쁜 선생님'이라 부르시던 강일출 할머니는 이다음에 꼭 같이 살자는 말씀을 종종 하셨다. "병상에 계시는 2년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엄마 옆에 있었으니 같이 산 거나 다름없죠. 제가 친정엄마보다 더 좋아했어요. 엄마도 저를 딸만큼이나 아끼셨고요." 김보미 씨는 밤마다 할머니를 품에 안고 다독이며 잠을 청했다. 할머니는 김보미 씨의 손을 잡아야 잠들 만큼 그에게 의지했다. 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잠결에도 할머니는 불쑥불쑥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곤 하셨다. 할머니의 그림 '태워지는 처녀들' 속 그 장면이 다시 떠오른 것인지도 모른다. 수십 년이 흘러도 가슴속에 웅크리고 있던 트라우마가 꿈속에서까지 할머니를 괴롭혔다.

할머니들을 기억해야 할 이유

강일출 할머니 곁에 오랜 시간 머물던 김보미 씨는 나눔의 집 할머니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라고 말한다.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해요. 우리 후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 그것만이 할머니들의 마지막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길입니다." 할머니가 사랑했던 나눔의 집 앞마당의 꽃은 매년 다시 피어난다. 우리가 그 꽃을 보면서 강일출 할머니를 떠올린다면, 할머니 역시 매년 우리의 기억 속에서 봄처럼 환하게 피어나실 것이다.

흐려진 글씨가 보내는 신호

눈 건강을 지킬 시간

'몸이 천 냥이면, 눈은 구백 냥'이라는 옛말이 있다. 우리 눈은 그만큼 소중하지만, 신문이나 책을 읽다가 글자가 흐릿해 보이는 순간이 있다. 조명을 더 밝히거나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들여다보지만, 또렷해지지 않는다면 눈이 보내는 적신호일 수 있다.

글 유현경



시력 저하를 부르는 대표 질환

눈은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기능이 떨어진다. 가까운 글자가 잘 보이지 않거나 밝기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노안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다. 그러나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백내장은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거나 빛이 번져 보이는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초기에는 단순한 시력 저하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한다.

이와 함께 녹내장과 황반변성도 주의해야 한다. 녹내장은 시신경 손상으로 시야가 서서히 좁아지고,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늦어지기 쉽다. 황반변성은 시야의 중심이 흐려지거나 일그러져 보이는 질환으로, 독서를 할 때나 얼굴을 인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통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무엇보다 빠른 인지가 중요하다.

눈을 자극하는 환경을 피하자

눈 건강은 단순히 시력의 문제가 아니다. 시야가 흐려지면 활동이 줄고, 정보 자극이 감소하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눈 건강을 지키는 일은 결국 몸과 삶 전체를 지키는 일과 연결된다. 우리 눈은 깨어 있는 내내 일을 하기에 그만큼 노화가 가장 빨리 찾아오는 기관이다.

여기에 눈을 자극하는 환경과 조건이 더해지면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스마트폰은 눈 건강을 위협하는 복병이다.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은 중장년의 눈 건강에 더 해롭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눈 속 황반의 손상 속도를 높인다.
우리 눈은 1분에 15~20회 깜빡이며 눈물막을 만들어 눈을 보호한다. 스마트폰에 집중할 때는 눈 깜빡임이 5회 내외로 줄어든다. 눈물막의 수분이 증발하면 안구건조증이 나타나는데, 심하면 망막이 손상되고 시력이 떨어진다. 또 건조한 실내 공기도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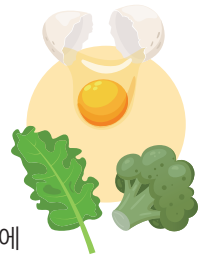
눈 건강 골든타임에 해야 할 일

눈 건강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화면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는 경우 20~30분에 한 번씩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의 긴장을 푸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볼 때는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잠시 감아 눈물막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충분한 조명도 중요하다. 어두운 곳에서 글을 읽거나 화면을 보는 습관은 눈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또 자외선은 수정체 노화를 촉진하고, 황반변성과 백내장의 주범이므로 외출할 때는 선글라스를 착용할 것을 권한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 역시 필수다. 특히 40세 이후에는 연 1회 검진을 권장하며,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면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60대 이후에는 황반변성,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등 주요 안질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쉽지 않으므로 흐려진 순간을 그냥 넘기기보다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불편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눈 건강을 오래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다.

눈에 좋은 영양소

녹황색 채소 같은 항산화 식품은 눈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만큼 영양제 형태로 복용하는 것도 좋다.

♣ **루테인 & 지아잔틴**
황반의 색소 밀도를 유지해 준다.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가 걱정되는 중장년층에게 필수영양소. 루테인은 케일, 브로콜리, 달걀노른자에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 **오메가-3**
안구 건조 개선에 효과적이다. 눈물의 기름층을 건강하게 만들어 눈이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연어, 고등어 등 등푸른 생선에 들어 있다.



♣ **비타민 A & 안토시아닌**
야맹증 예방과 눈의 피로 완화에 도움을 준다. 블루베리, 당근, 시금치 등에 많이 들어 있다.



♣ **아스타잔틴**
눈 근육의 수축·이완을 조절해 피로도를 개선한다. 연어, 새우, 송어 등에 많이 함유돼 있다.



내 곁에 생긴 말벗 챗GPT

이젠 스마트폰에 설치된 생성형 인공지능 앱과 이야기를 나누며 궁금증을 푸는 시대가 됐다.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은 물론이거니와 버튼을 누르는 동작 하나로도 대화하듯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생성형 인공지능 앱은 '챗GPT'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옆에서 친절하게 도와주는 '디지털 대화 친구'라고 생각하면 된다.

글 유현경



무엇을 물어볼 수 있을까?

챗GPT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평소 궁금하던 것을 가족이나 이웃에게 이야기하듯 편하게 질문하면 된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어떤가요?", "○○○ 반찬은 어떻게 만들어요?", "무릎 건강에 좋은 운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같은 일상적 질문도 가능하다. 또 병원이나 은행에 가기 전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처럼 미리 알아보고 싶을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법과 관련해선 "사진은 어떻게 보내나요?", "문자메시지 글씨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질문도 할 수 있다.

챗GPT와 일상적인 주제로 대화도 가능하다. "나 오늘 우울한 일 있었어요", "손주한테 전화가 왔네요" 등 말을 건네면 위로도 받을 수 있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도 있다.

틀리게 말해도 괜찮다. 문장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아도 이해하고 답해 준다. 부담 없이 질문하고, 잘못 알아들었다 싶으면 다시 말하면 된다. 익숙해지면 생활 속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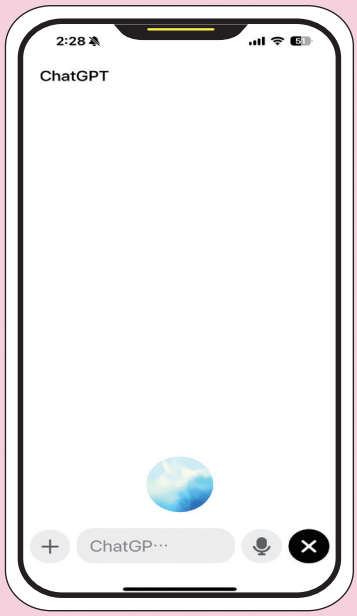
설치하기

구글플레이(안드로이드폰)나 앱스토어(아이폰)에서 'ChatGPT(챗GPT)'를 찾아 '받기'를 누른다.



음성 대화 버튼 누르기

대화창 오른쪽의 '대화 버튼'을 누른다



대화하기

친구에게 이야기를 건네듯 말해보자

휴대폰으로 챗GPT를 사용해 보자

챗GPT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복잡한 준비 없이 몇 가지 단계만 따라 하면 된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앱스토어'(아이폰) 또는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를 연다. 검색창에 '챗GPT'를 입력하고 앱을 설치한다. 설치가 끝나면 앱을 실행한다.

처음 사용할 때는 간단한 가입 절차가 필요하다.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 앱을 열면 글자를 입력하는 창이 보인다. 여기에 궁금한 내용을 적으면 된다.

'대화 모드'도 있다. 마이크 옆 버튼을 누르면 챗GPT와 직접 말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대화 화면으로 바뀌고, 내가 말을 하면 바로 챗GPT가 듣고 이해한다.

이럴 때 도움이 됩니다

- 말벗이 되어주는 기능
- 궁금한 것을 바로 물어볼 수 있음
- 건강 및 생활 정보 제공
- 취미 생활 지원 기능

이어서 챗GPT가 사람처럼 말로 답해 준다. 질문과 답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 마치 사람과 대화하듯 사용할 수 있다.

챗GPT의 말이 정답은 아니다

챗GPT는 편리한 도구지만 때로는 잘못된 정보를 진짜인 것처럼 말하거나 예전 정보를 안내할 수도 있다. 따라서 건강, 병원 진료, 금융, 법률 등 정확성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함께 받아야 한다.

답변이 이해되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검색해서 알려 주세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요?"처럼 다시 물어보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챗GPT는 '완벽한 정답'이라기보다 '도움을 주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좋다.

자녀에게 사진 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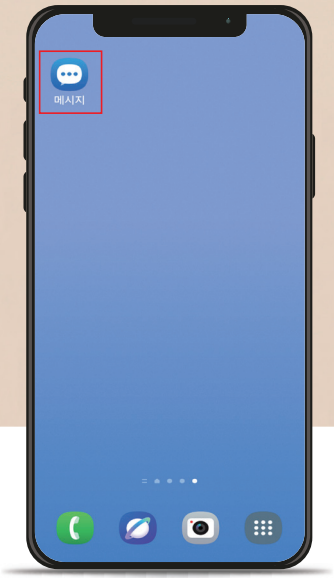
문자로 사진 전송

자녀나 손주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면,
멀리 있어도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스마트폰 문자는 글뿐 아니라 사진도 함께
보낼 수 있어, 일상을 나누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이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글·사진 편집실



▶▶▶ 안드로이드 폰(갤럭시)에서 사진 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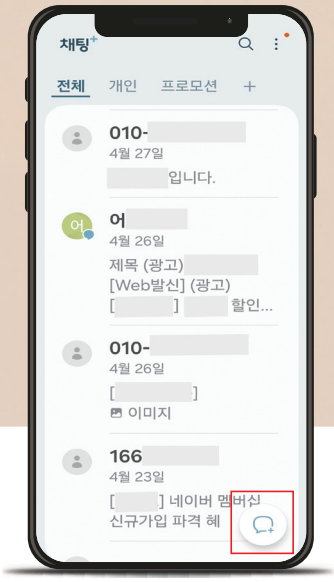
1. 메시지 앱 열기
말풍선 모양의
'메시지' 앱을 눌러주세요.

더 쉬운 방법
☞ 갤러리(사진 앱)에서 사진을 길게 누른 뒤 '공유'를 누르고 '메시지'를 선택해도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 아이폰에서 사진 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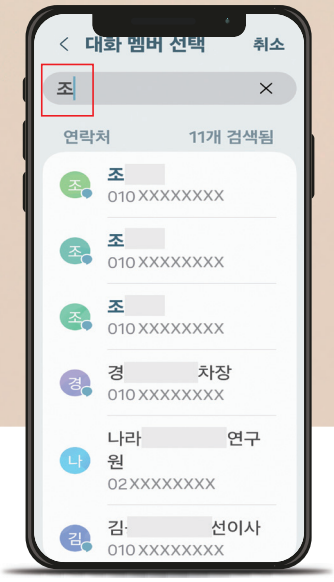


1. 메시지 앱 열기
초록색 바탕의 하얀 말풍선
'메시지' 앱을 눌러 주세요.



2. 새 메시지 누르기

말풍선 모양의 버튼을 눌러
새 메시지를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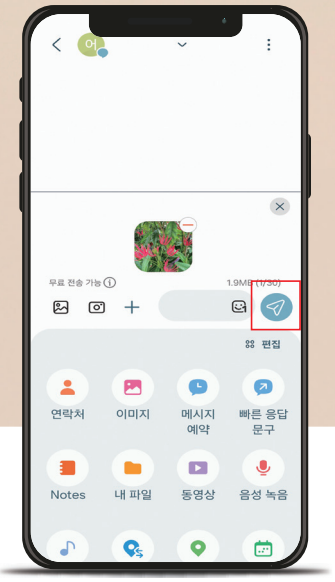
3. 받는 사람 선택하기

받을 사람의 이름을 찾거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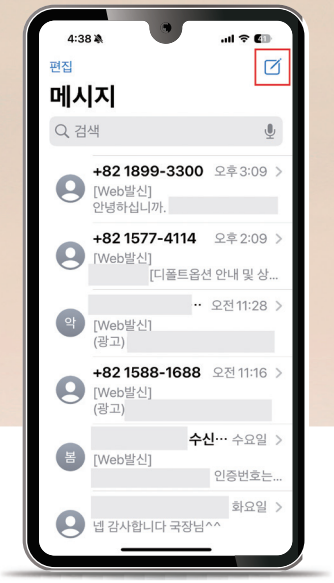
4. 사진 넣기

입력창 옆에 있는 '+' 와
'이미지' 버튼을 누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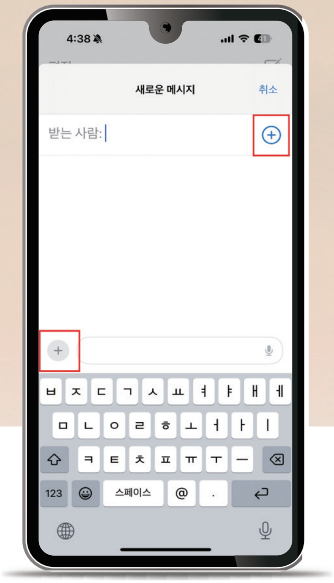
5. 사진 선택하고 전송 버튼 누르기

보내고 싶은 사진을 선택해
종이비행기 모양 버튼을 누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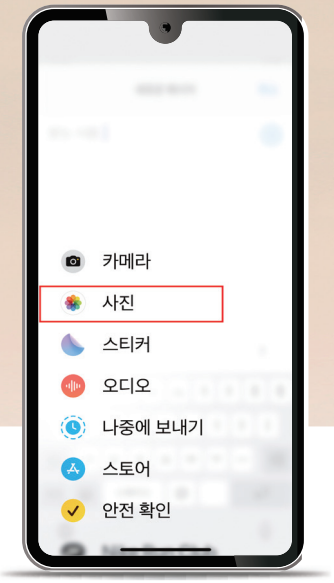
2. 새 메시지 아이콘 선택

새 메시지를 만듭니다.



3. '+' 아이콘 누르기

'받는 사람'을 선택하고
입력창 왼쪽의 '+'를 누릅니다.



4. '사진' 아이콘 선택하기

리스트 중 '사진' 아이콘을
누릅니다.



5. 사진 선택하고 전송 버튼 누르기

사진을 선택한 후 화살표 모양 버튼을
누르면 발송됩니다.

장터에서 마트까지 장을 본다는 것

한 끼 식사 준비를 위해,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 마음에 드는 것을 사기 위해 장을 누빈다. 옛사람에게나 우리에게나 장을 본다는 것은 생활을 위한 무언가를 채우는 일이다.

글 유현경



풍족하고 여유로운 마트의 일상

잠시 시간을 내어 가까운 마트에 갔다. 카트를 밀고 들어가는 일은 생각보다 고요하다. 문이 열리면 계절이 아닌 조명이 먼저 반겨주고 채소와 고기,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장난감까지 늘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놓여 있다.

'오늘은 이걸 사볼까?', '이것도 다 떨어졌지?', '어, 이거 할인하네' 하며 손을 뻗어 물건을 집는다. 물건 고르는 일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미 정해진 듯 손이 먼저 움직인다. 그래도 유통기한을 보고 가격을 확인한다. 장보기를 마치고 카트를 보니 어느새 물건으로 가득 차 있다.

카트를 밀며 지나가는 통로는 늘 한 방향으로 흐른다. 입구에서 채소와 과일 코너를 지나고, 고기와 생선 코너를 거쳐 가공식품 코너로 이어진다. 우리는 물건을 사러 왔지만 어느새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인다. 장보기는 언제나 손이 먼저 기억한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계산대 앞엔 자연스럽게 줄이 늘어선다. 서로 말 걸지 않아도 질서가 유지된다.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거래가 완성된다. 장을 본다는 게 점점 '혼자서도 충분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

수많은 물건 사이에서 잠시 생각한다. 우리는 왜 장을 볼까. 필요한 것을 고르고 가격을 비교하며 더 나은 조건을 찾는다. 그러나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장을 본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삶을 이어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었다.

닷새마다 열리던 이벤트 같던 장터

그 옛날 장보기는 해 뜨기 전부터 부산한 일이었다. 장터는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았으니 일찌감치 아침을 먹고 나설 채비를 했다. 삼한시대부터 이어진 장터에서는 쌀과 보리, 콩과 조, 기장 같은 오곡을 사고팔고, 집에 없는 물건을 이웃과 맞바꾸기도 했다. 마을 사이 갈림길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졌다.



"예나 지금이나 장 보는 일은
삶을 이어가기 위한 리듬이었다."

장으로 향하던 길도 장터의 일부였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걸음을 재촉하던 사람들, 지게를 지고 산길을 넘던 농부들, 나귀나 수레에 물건을 싣고 가던 이들. 장보기는 장터에 도착해야 시작되는 일이 아니라 길 위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고려와 조선을 거치며 보부상이 모여 오일장의 질서가 만들어졌다. 장은 아무 때, 아무 곳에서나 열리지 않았다. 장날이 되면 공터가 장터가 되고, 조용하던 곳이 금세 북새통을 이뤘다. 하루 일찍 가도, 늦게 가도 허탕이었다. 조선 후기 지리지 <동국여지승람>에는 장이 서는 날이 기록되어 있다. 장은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닌, 정해진 날에만 열리는 순환형 시장이었다.

장시는 전국으로 퍼져 18세기에는 1,000여 곳에 이르며 지역을 잇는 유통망 역할을 했다. 지금도 경기도 곳곳에서 오일장이 이어진다. 장날은 단순한 거래일이 아니라 다섯 날마다 돌아오는 삶의 리듬이었다.

흥정 속에 정겨움이 묻어나던 장

지금의 시장이나 마트와 달리 장터에서는 상인뿐 아니라 농민과 수공업자 등 누구나 물건을 직접 팔 수 있었다. 집에서 수확하거나 만든 것을 들고 나와 팔고, 그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는 일이 자연스러웠다.

장터에 도착하면 물건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사람이었다. 말이 오가고 물건은 그 뒤를 따랐다. "싸게 해줄 테니 사시오", "새벽에 해온 싱싱한 놈이요". 어촌의 오일장에는 싱싱한 수산물이 넘치고, 특산품 장에는 손수 만든 물건이 가득했다.

장터에는 그곳에서만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사람 목소리, 흥정하는 크고 작은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장돌뱅이의 외침. 장터만의 냄새도 있었다. 갓 잡은 생선의 비릿함과 뜨끈한 국밥에서 피어오르는 김, 볕에 말린 곡물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너무 비싸오. 조금만 깎아주시오", "지금도 헐값인데, 그러면 내가 손해지". 값을 묻고 다시 말을 얹으며 흥정이 이어졌다. 조금 깎이고 조금 더 보태지며 값은 사람 사이에 정해졌다. 물건값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 물물교환도 활발했다.

이런 풍경은 김홍도의 풍속화에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장터에 모여 서로 값을 흥정하고, 물건을 손에 들어 보



"장 보는 일은
물건 사는 것을 넘어
나누고 채우며 관계를 잇는
일이었다."

며 고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정서를 그대로 전해 준다.

먹고 보고 놀고, 재미있는 장 구경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갓을 쓴 어르신들이 오일장에서 장 보는 모습은 익숙했다. 약장수의 화려한 공연은 이제 추억이 되었다. 필요한 물건을 사면 지게나 광주리에 담았다. 그러나 집으로 곧장 돌아가지는 않았다. 며칠에 한 번 열리는 장이니 구경이 빠질 리 없었다. 장에 물건만 있는 건 아니었다. 공연과 놀이, 음식이 어우러진 문화 공간이었다. 북적이던 장터가 파장할 무렵이면 사람들은 주막으로 모여들었다. 김이 오르는 가마솥 국밥에 막걸리 한잔 나누며 안부와 집안 이야기가 오갔다. 장터 주변에는 주막과 상점이 자리 잡고, 교류가 활발해지고, 지역 경제도 살아났다. 장터는 생활과 경제를 잇는 중심이었다.

오늘날 마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생활용품과 패션용품, 가전제품뿐 아니라 푸드 코트와 카페, 문화 공간이 공존한다. 돌아보면 사람 사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닮아 있다. '장보기'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것을 나누고 부족함을 채우며 관계를 이어가는 과정인 것이다.

숫자로 바뀐 거래,
편리해진 대신 사라진 것들

우리는 더 이상 장날을 기다리지 않는다. 필요한 것이 생각나면 곧장 집을 나서면 된다. 마트에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가격표가 정해진 만큼 흥정할 필요도 없다. 대신 어느 것이 더 저렴한지, 더 효율적인지를 먼저 따진다. 카트를 밀며 물건을 골라 담고,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는다. '삑' 소리와 함께 몇 초 만에 거래가 끝난다. 마트는 속도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더 빠르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과거의 거래는 말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숫자가 이를 대신한다. 가격은 누구에게나 같고, 계산은 기계가 한다. 흥정이 아닌 할인과 적립이 자리를 채웠다. 관계 대신 시스템이 거래를 완성한다. 지금의 마트는 일정한 온도와 밝기, 정돈된 진열을 유지한다. 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냄새는 줄고, 소리는 낮아졌다. 감각은 줄어들고, 선택하기는 쉬워졌다. 우리는 지금 덜 느끼고 더 빨리 고른다.

남아 있는 것과 이어지는 의미

그럼에도 모든 감각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계산원에게 건네는 짧은 인사, 익숙한 직원의 얼굴, 같은 시간대에 마주치는 사람들. 말은 줄었지만 반복되는 만남은 여전하다. 관계는 형태를 바꿨을 뿐이다. 변화가 곧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같은 값으로 물건을 살 수 있고, 그것을 얻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은 줄었다. 거래는 더 공정하고 편리해졌다. 다만 빨라진 만큼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주고받던 사람의 온기는 점점 옅어지고 있다.

우리는 장바구니를 채우면서 여전히 누군가의 하루와 연결된다. 장을 본다는 일은 결국 하루를 채우는 방식과 다르지 않다. 무엇을 고르고 무엇을 내려놓을지,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비울지 결정하는 과정이다.

예전에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 균형을 맞췄고, 지금은 시스템 속에서 그 균형을 찾는다. 방식은 달라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고르고, 채우고, 이어간다. 그리고 그 반복을 통해 하루를 완성한다. 선조의 하루와 나의 하루는 그렇게 이어져 있다.

변해온 집, 변하지 않은 우리

지금의 집은 버튼 하나로 온도가 조절되고, 그 시절의 집은 겨울이면 방바닥이 따뜻한 곳과 차가운 곳으로 나뉘었다. 집을 지탱하는 구조와 생활상, 집 안을 채운 물건은 달라졌지만 집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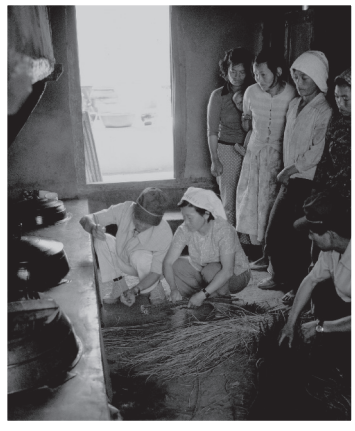
글 유현경
사진 공유마당, 국립민속박물관, e영상역사관



구들 따라 퍼진 온기

예전 집의 중심은 부엌이 아닌 방이었다. 부엌은 지금처럼 집 안이 아니라 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 분리된 공간이었다. 부엌 한편에 자리한 아궁이에 피운 불이 구들을 따라 방으로 이어져 온기를 만들었다. 연탄을 갈고 불을 지피는 일은 중요한 일과였다. 아침에 피운 불기운은 온 집으로 퍼져 방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저녁이 되면 다시 불을 살피는 일을 반복했다. 시커먼 연탄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었다. 연탄을 몇 장 쓰느냐에 따라 겨울의 길이가 달라졌고, 창고 안 연탄의 높이는 마음의 여유를 보여 주기도 했다. 온전히 가족을 위한 공간인 부엌은 밥을 짓고 불을 다루는 곳이었다. 부엌에서 시작된 온기가 방으로 전달됐고, 그 따뜻함은 온 가족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다.

부엌 대신 주방이라 불리는 지금의 공간은 한결 세련되어지고 가사노동은 훨씬 수월해졌지만 부뚜막에 앉아 동요 '어린 송아지'를 부르던 기억만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한 화면에서 각자의 시간으로

처음 텔레비전이 집에 들어온 날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 또렷하다. 흑백TV에서 컬러TV로 바뀌고, 화면은 선명해졌으며, 자연스레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 앉았다. 저녁이면 거실에 모여 같은 프로그램을 보는 시간이 이어졌다. 채널이 많지 않아 선택지는 단순했고, 그만큼 함께하는 시간은 자연스러웠다. 비디오가 등장한 뒤에는 새로 나온 영화를 먼저 보기 위해 동네 비디오 가게를 찾기도 했다. 선풍기 바람이 윙윙 소리를 내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이야기가 집 안을 채우던 시절, 10대 딸은 엄마가 듣던 옛 음악을 자신도 모르게 따라 부르곤 했다. 지금은 각자의 기기로 서로 다른 콘텐츠를 소비하지만, 그때는 하나의 화면과 하나의 소리를 공유했다.

변치 않은 '우리 집'의 의미

유선 전화기는 집 안에 들어온 또 하나의 변화였다. 벨이 울리면 모두가 귀 기울였고, 누가 전화를 받을지도 자연스럽게 정해졌다. 이후 무선호출기, 이른바 삐삐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집 밖에서도 연결되기 시작했다. 숫자로 메시지를 남기고, 공중전화를 찾아 다시 연락하던 방식은 지금과 전혀 다른 소통의 풍경이었다.

통신 수단이 발달하면서 집 안에서도 점점 외부와 연결됐다. 예전에는 집 안에서 하루가 완성됐다면, 이후에는 집과 밖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구조로 변화했다.

그런데도 집 안에 쌓인 시간과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의 집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고, 지금의 집 또한 또 다른 추억이 되고 있다. 방의 개수와 크기, 빌라와 아파트라는 형태는 달라졌지만 가족이 함께하는 '우리 집'이라는 의미는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집에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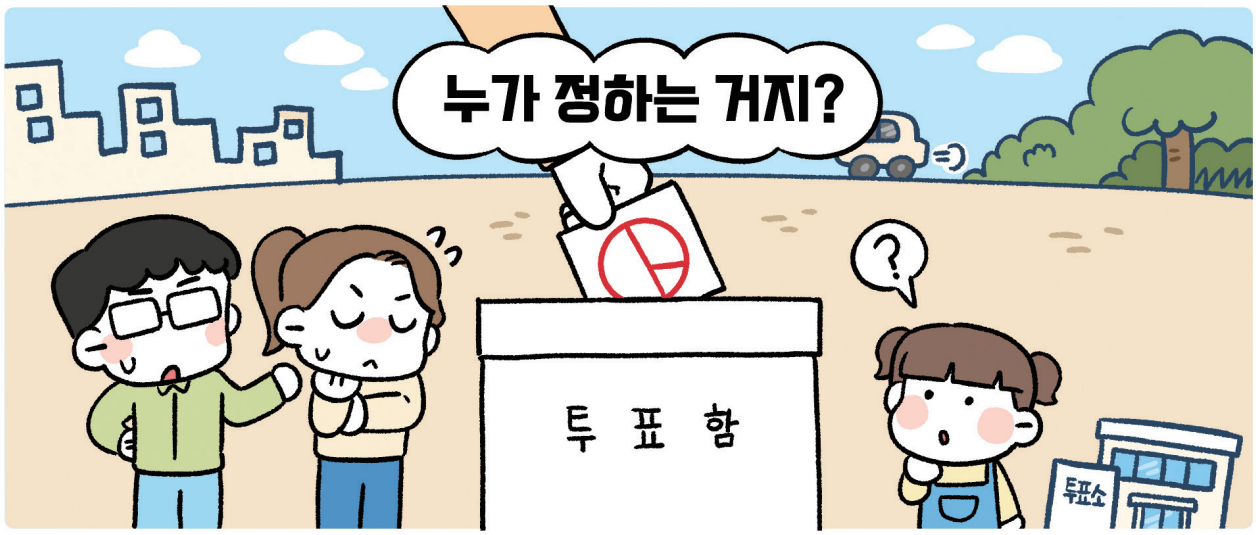
독자 이벤트

'우리 집'에 얽힌 추억을 소개해 주세요

어린 시절 기억 속 '집'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그림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한 장에 담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보내주신 이야기 중 일부는 다음 호 '응답하라 경기'에 소개됩니다.

문자 접수 센터 1599-3086

글 편집실 일러스트 바카











'의회툰'은 경기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쉽게 풀어낸 웹툰입니다.
도민의 일상 속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과 맞닿아 있는 의회의 역할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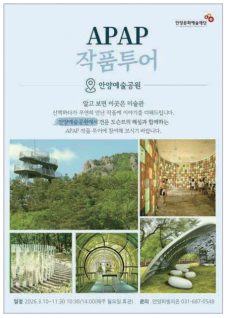
예술로 채워지는 하루
경기도 축제와 전시



안양 축제

예술이 된 공원과 거리

APAP 작품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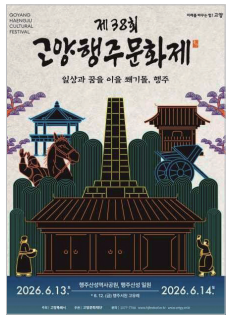
안양예술공원을 비롯해 평촌 지역의 아름다운 숲과 하천, 도심 속 공원과 일상 공원을 작품 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APAP의 공공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안양의 역사와 도시 문화를 품은 미술, 조각, 건축, 디자인,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공예술 작품에 담긴 이야기를 전한다.

기간 2026. 3. 10.~11. 30.(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안양예술공원
요금 일반 3,000원, 청소년 1,000원
문의 031-687-0548
홈페이지 apap.or.kr

고양 축제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순간

제38회 고양행주문화제



행주산성과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행주산성역사공원 일원에서 행주대첩 투석전(전국 박 터트리기 대회), 한강 수상 드론 퍼포먼스와 수상 불꽃놀이, 뮤지컬 <행주대첩> 등 대표 프로그램과 고유례, 길놀이 등 전통성을 계승하는 프로그램, 그 외 다양한 공연·전시·체험·참여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기간 2026. 6. 13.~6. 14.
장소 행주산성역사공원 및 행주산성 일원
요금 무료
문의 1577-7766
홈페이지 hjfestival.or.kr

수원 축제

와인과 음악의 하모니

와인뮤직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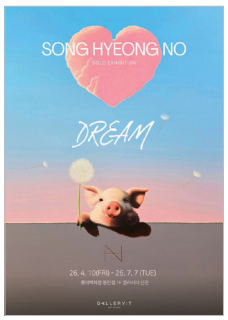
다양한 와인과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도심형 라이프스타일 이벤트. 국내 와인 유통사들이 직접 선보이는 수백 종의 와인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며, 입장권 하나로 자유로운 시음이 가능하다. 해가 지면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와인과 사람,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멋진 풍경을 만들어낸다.

기간 2026. 6. 25.~6. 28.
장소 수원컨벤션센터 야외광장
요금 1만 5,000원
문의 02-6015-8254
홈페이지 winemusic_festival

화성 전시

무의식 속 감정을 풀어내다

송형노: Dream



단순히 동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메타포(은유)로서 동물을 통해 인간의 이야기, 더 나아가 현대인의 삶과 욕망, 희망으로 확장해 나간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돼지'와 '토끼'라는 상징적 존재를 중심으로 우리가 무의식에 품고 있는 감정과 가치를 시각적으로 풀어낸다.

기간 2026. 4. 10.~7. 7.
장소 갤러리티 동탄점
요금 무료
문의 031-8036-2279
홈페이지 galleryt.net

수원 전시

금강송이 들려주는 삶의 결

금강송 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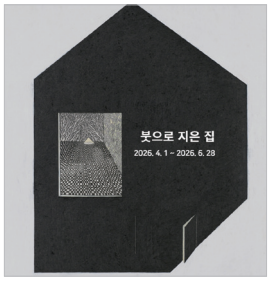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된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을 조명한다. 전시는 금강송을 중심으로 숲과 농경, 생활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조명한다. 목재 활용뿐 아니라 문화적·생태적 의미까지 아우르며, 나무 한 그루가 품고 있는 시간의 깊이를 보여 준다.

기간 2026. 4. 14.~6. 14.
장소 국립농업박물관
요금 무료
문의 031-324-0768
홈페이지 namuk.or.kr

양주 전시

익숙하면서 낯선 집

붓으로 지은 집



한국화 작가들은 붓질을 통해 기억과 감정이 머무는 공간을 쌓아 올리듯 표현하며, 집을 단순한 건축이 아닌 삶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장소로 바라본다. 화면 위에 겹겹이 쌓인 색과 선은 시간의 결을 드러낸다. 익숙하지만 낯설게 다가오는 '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전시다.

기간 2026. 4. 1.~6. 28.
장소 안상철미술관
요금 무료
문의 031-874-0734
홈페이지 ahnsangchul.co.kr

수원 전시

'입기'란 다양한 의미의 조망

입는 존재



옷은 단순한 생활용품을 넘어 개인의 취향과 시대의 가치, 관계의 의미를 드러내는 매개가 된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 '무엇을 입는가'가 곧 '어떻게 살아가는가'와 연결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몸을 감싸는 옷을 통해 존재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선을 제시한다.

기간 2026. 3. 19.~6. 28.
장소 수원시립미술관
요금 무료
문의 031-5191-3800
홈페이지 suma.suwon.go.kr

과천 전시

한국 근현대미술의 흐름

MMCA 과천 상설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중 180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의 작품 145점을 소개하는, 한국 근현대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상설전. 근대기 서양화 도입부터 현대미술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변화 속에서 형성된 다양한 미술 양식과 작가들의 시선을 담아낸다.

기간 2026. 4. 22.~2027. 6. 27.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요금 3,000원
문의 02-2188-6000
홈페이지 mmca.go.kr/visitingInfo/gwacheonInfo.do

광주 전시

보이지 않는 힘을 마주하다

NUMEN 뉴먼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하는 핀란드 작가 빌레 칸사넨의 개인전. <NUMEN 뉴먼>은 공간과 존재,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감각을 탐구하는 전시다. '뉴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기운과 존재를 의미하며, 작품은 빛과 구조, 공간의 긴장을 통해 관람자의 감각을 확장한다.

기간 2026. 4. 4.~8. 2.
장소 닻미술관
요금 무료
문의 031-798-2581
홈페이지 datzmuseum.org/numen

수원 전시

박물관 보존과학실의 일

쏙쏙고쳐방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박물관의 유물이 손상된다면 어떻게 할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박물관의 숨은 직업인 '보존과학자'가 나선다! 보존 처리가 필요한 유물을 쏙쏙 골라 말끔하게 고치는 과정을 수원광교박물관 보존과학 전시 <쏙쏙고쳐방>에서 보여 준다.

기간 2025. 11. 18.~2026. 12. 31.
장소 수원광교박물관
요금 성인 2,000원, 청소년 1,000원
문의 031-5191-4175
홈페이지 smuseum.suwon.go.kr

양평 전시

상자를 여는 순간의 설렘

야외 소장품 컨테이너전 <UNBOXING>



양평군립미술관 수장고에 보관된 소장품을 야외 컨테이너 전시장에서 선보인다. 제목은 수장고라는 상자 안에 머물러 있던 작품을 처음으로 관람객 앞에 펼쳐 보인다는 의미를 담았다. 상자를 여는 순간의 설렘과 기대, 미술관의 보물 상자를 일상에서 향유할 수 있다.

기간 2026. 3. 14.~7. 19.
장소 양평군립미술관
요금 성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문의 031-775-8515
홈페이지 ymuseum.org

용인 전시

낯선 연결 속에서의 새로운 가능성

불연속의 접점들



백남준아트센터와 자그레브 현대미술관의 오랜 협력으로 만들어진 전시. 서로 다른 시간과 매체, 감각이 만나는 지점을 탐색한다. 백남준의 예술과 불연속적으로 접점을 만들고 공명하는 크로아티아 예술가들의 작품과 1960~2000년대 크로아티아의 현대미술을 만날 수 있다.

기간 2026. 3. 19.~6. 14.
장소 백남준아트센터
요금 무료
문의 031-201-8500
홈페이지 njp.ggcf.kr

평택 공연

다가온 클래식의 숨결

제2회 PCMF 평택실내악축제



'Continuum(연속성)'을 주제로 전통과 현대, 그리고 세대를 잇는 실내악의 정수를 선보인다. 작년에 이어 바이올리니스트 김현미 음악감독을 중심으로 국내외 정상급 연주자들이 참여해 평택아트센터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에서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을 맞이한다.

기간 2026. 5. 29. / 5. 30. / 6. 5. / 6. 6.
장소 평택아트센터
요금 전석 3만 원
문의 031-669-0812
홈페이지 pccf.or.kr

용인 공연

전통의 울림, 새롭게 비추다

경기, 소리 만화경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선보이는 이번 기획 공연은 특유의 자유로운 연주를 바탕으로 다양한 악기와 음색이 어우러지며 변화무쌍한 음악적 장면을 만들어낸다. '만화경'처럼 끊임없이 변주되는 소리를 통해 경기도의 정서와 음악적 색을 새롭게 비춘다.

기간 2026. 6. 20.
장소 경기국악원 국악당
요금 전석 3만 원
문의 031-289-6472~5
홈페이지 ggac.or.kr

독자 솜씨 마당

<경기도의회> 소식지 제295호를 읽고 보내주신 소감과 독자 참여 코너 '추억의 사진'에 담긴 이야기들이 도착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사진마다 지나온 시간의 온기와 삶의 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보내주신 사연은 우리 일상과 맞닿아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소중한 기억을 나눠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자란 시간

작은아들 돌을 전후해 촬영한 형제 사진입니다. 이로부터 40여 년이 지나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운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아련한 기억이지만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강진우(76)**

터미널 앞에서

1980년대 고등학생 시절, 등하교를 위해 직행버스와 완행버스 중 하나를 타려고 늘 이 터미널을 오갔습니다. '야채·과일 다 있소'라고 적힌 건물이 바로 직행버스 타는 곳이었지요. 지금은 상가가 즐비한 모습이지만, 우연히 옛 사진을 보며 그 시절을 떠올려봅니다.

박미라(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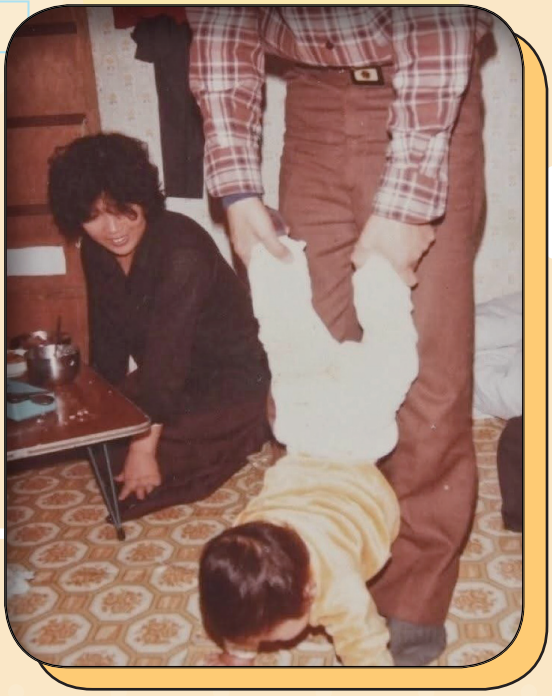


가장 맛있던 점심

가을 체육대회 날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과 함께 뛰놀고 나서 먹은 점심이 가장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즐거움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주정현(60)**





작고 단단한 시작

8개월 때부터 걸을 만큼 에너지 넘치는 아들의 체력을 빼주고 계시는 아버지. 이 아이는 강인하게 커서 100kg이 됩니다.

김민수(04)**

처음 부린 멋

유치원에 들어간 뒤 가족과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는 나름 멋도 부린 것 같네요. 지금은…,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효근(65)**





지나고 나서야 보이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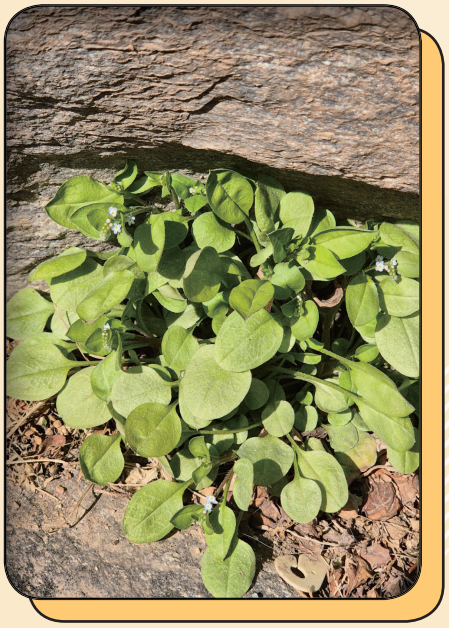
학창 시절에는 좋았던 기억도, 좋지 않았던 기억도 함께 있지만 그 시간을 지나며 만난 모든 사람을 이제는 이해하고 떠올리게 됩니다. 교복을 입고 지냈던 그 시절은 돌아보면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성유연(62)**

햇살을 받는 마음

언젠가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입니다. 작은 돌담 아래에서 고개를 내밀고 햇살과 바람을 받으며 자라는 잎사귀들을 보았습니다. 마치 "힘내라"라고 응원해 주는 듯해 그날 하루 유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함영화(75)**





봄, 그리고 어머니

1982년, 학창 시절의 봄은 참 푸르렀습니다. 큰오빠 결혼식 날 처음 한복을 입고 어머니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와 찍은 첫 사진이라 그 순간이 더 소중하게 남아 있습니다. 겹벚꽃이 피던 봄날을 떠올리면,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많이 그립습니다.

전옥자(65)**



가방 속 사탕

어릴 적 학창 시절에는 서울에서 규모가 꽤 큰 동네 슈퍼를 했습니다. 석유와 연탄도 함께 팔았지요. 6남매였던 우리는 등교할 때 가방에 과자와 사탕을 하나씩 챙겨 다녔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모두 떠나셨지만 문득 문득 그 시절이 아련하게 떠오릅니다.

임지영(96)**



딸과 나, 두 개의 시간

딸과 함께 쇼핑하러 나왔습니다. 40여 년 전, 아장아장 걷던 딸을 업고 나들이 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훌쩍 커서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시간이 참 빠르게 흘렀음을 느낍니다.

김양순(00)**

독자이벤트

추억을 보내주세요

추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 속 한 장면을 들려주세요.
사진 한 장, 짧은 이야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시간이 이곳에서 다시 따뜻해집니다.
보내주신 이야기와 사진 중 일부는 다음 호 '독자 솜씨 마당'에 소개됩니다.

문자 접수 센터

1599-3086 접수 마감: 6월 23일

이름과 주소를 기재해 보내주세요.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사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수집된 개인정보는 <경기도의회> 발송 및 경품 지급 행정 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Gyeonggi Credit Guarantee Foundation



다운로드 방법

①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
이지원 혹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검색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Easy One"** 다운로드

② QR코드를 통한 다운로드

사전준비

1. **홈택스 회원가입**(www.hometax.go.kr)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3. **금융, 간편인증서**(카카오, Pass 등)

모바일 보증

1. 신청요건

- **소상공인(공동사업자, 법인 제외)**
- 국세청 사업자 회원가입 필수
- 전자인증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준비
- 사업장·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자가 또는 가족소유인 경우 생략)
- 신용평점 840~879점 또는 신용평점 840점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사업자등록 후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최근 3개월 매월 및 최근 1주일 매출이 발생하거나, 기보증업체로 기존 사업자 변동없이 2년 이내 추가보증 신청한 기업

※ 단, 보증잔액 2건 이상 보유하거나 당좌거래 내역 보유한 업체 또는 보증지원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절차

본인인증 → 보증신청 → 모바일보증 선택

3. 지원절차 및 내용

모바일보증 클릭 → AI 자동심사 → 모바일 약정 체결 후 대출실행

영업점 상담 접수

1. 신청요건

- **소상공인(공동사업자 제외)**
  ※ 법인기업 추후 서비스 예정
- 국세청 사업자 회원가입 필수
- 전자인증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준비
- 사업장·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자가 또는 가족소유인 경우 생략)

2. 신청절차

본 인 인 증
↓
보 증 신 청
↓
영업점 상담 접수 선택

3. 지원절차

영업점 상담 접수 클릭
↓
영업점 직원 심사
↓
모바일 약정 체결 후 대출실행

"공공기관 방문 차량 5부제 확인하세요"

♣ **차량 5부제란?**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이용 여부를 나누는 제도입니다. 끝자리가 해당하는 요일에는 차량의 공공기관 방문이 제한됩니다.

♣ **왜 시행하나요?**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적용 대상**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시·군청, 직속 기관,
출자·출연 기관 및 공영 주차장(유료 노상·노외주차장)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 요일별 쉬는 차량(차량 번호 끝자리 기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1·6	2·7	3·8	4·9	5·0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누군가의 끝이 아닌, 누군가의 시작”

이 문장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다른 이의 삶을 밝히는 선택을 한
장기기증자의 숭고한 마음을 보여 줍니다.



경기도의회는 그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빛나는 그 결단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MIX
Paper | Supporting responsible forestry
FSC® C129206
PRINTED WITH SOY INK™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산림보호를 위해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산림관리협의회) 인증을 획득한 용지와 콩기름 잉크를 사용해 만듭니다.